



# MAGAZINE

#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온나라공인중개사 정예진 대표 — 비영리단체 착한동네 박훈서 대표 — 극단 동당애  
— 쿠킹스튜디오 밀 박주희 대표 — 한일어구상사 이태용 조옥만 부부 — 한글날 단상 — 막창일번지 김영철 대표  
— 교촌치킨 미장수송점 형남중 대표 — 울포유 수송나운점 임구환 사장 — 전승택 작가  
— 문화빈 시인 — 탐당구클럽 이만수 대표 — 채만식은 최고의 항일작가였다 —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 예금주\_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 제8회 군산대학교 캠퍼스 사진 공모전

Gunsan University  
Campus Photo  
Contest

2020. **11.09** 월  
— **11.20** 금

**공모분야** 군산대학교를 소재로 한 사진 작품

**접수기간** 2020.11.9.(월) ~ 11.20.(금)

**시상내역** 총 20작품 / 총 580만원

**세부내용**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기타문의** 063-469-7320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http://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 군산 제1호 태양광모듈 공장 설립

(주)참빛솔라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주)참빛솔라에너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25번지

Tel. +82-41-549-0600

Fax. +82-41-532-8291



군산에서  
K-컬처의  
시작을!

##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M. 010-8298-5758

T. 063-471-7181

E. jbguitar@naver.com

전북 군산시 나운로4 현대코아빌딩 201호





커피와 식사,  
그리고  
로맨스  
:



**COFFEENIE**  
C A F E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 063-466-8599



松月

오직 한 길,  
71년간 타월만을  
고집합니다



이젠 타월도  
품격 있는  
송월타월로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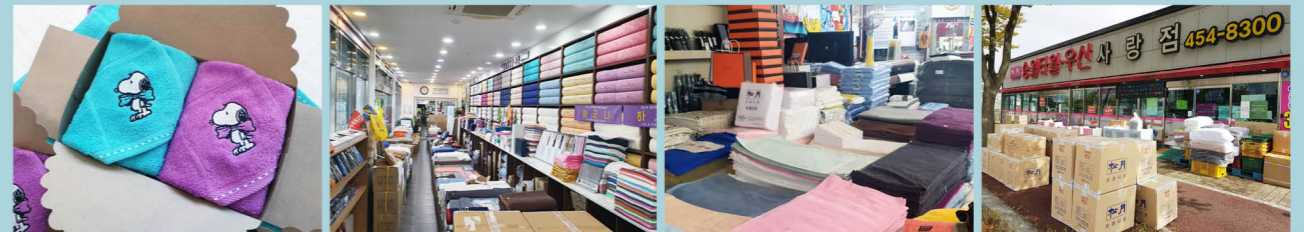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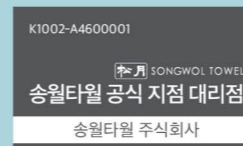
각종행사용 기념타월 선물세트, 관공서, 교회, 학교, 회사 답례용품,  
개업, 결혼, 칠순, 단체행사 등 답례용품, 최신 컴퓨터 도입

**松月** 송월타월  
SONGWOL TOWEL  
(주)군산대리점

대표\_류응수

군산대리점\_ 군산시 수송동 442-7 (수송동 군산볼링장 건너편)  
T.063-464-8002 M. 010-3672-5140

군산사랑점\_ 군산시 수송동 50-7 (은혜산부인과 / 캐리어에어컨 옆)  
T.063-454-8300 M. 010-3953-5140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 앞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동국**

옥상 테이블에 앉아 동국사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대군산 1930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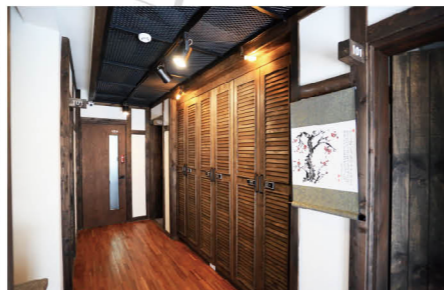
**010-5546-0955**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7(월명동 19-11)

[blog.naver.com/firegirn](http://blog.naver.com/firegirn)



게스트하우스 동국  
 예약하기



산지 직송  
**국내산 왕새우** 전문점

# 왕새우 한마당



군산시 서수송안1길 19-4

(수송 코아루 아파트 후문 앞)

**T. 063-464-3636**



#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 특가상품은?

이번달 한 달 동안 업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 하는 상품입니다.

\*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 0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 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 0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 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0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 이메일 답변 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 0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형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0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아이젠카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꺼야

군산에  
귀한손님이 오시면  
일제강점기 가옥  
게스트하우스 이웃에  
모시면 좋습니다

히로쓰가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크에서  
한가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 촬영장소

GUESTHOUSE IUT



010-4048-8811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시 신흥동 5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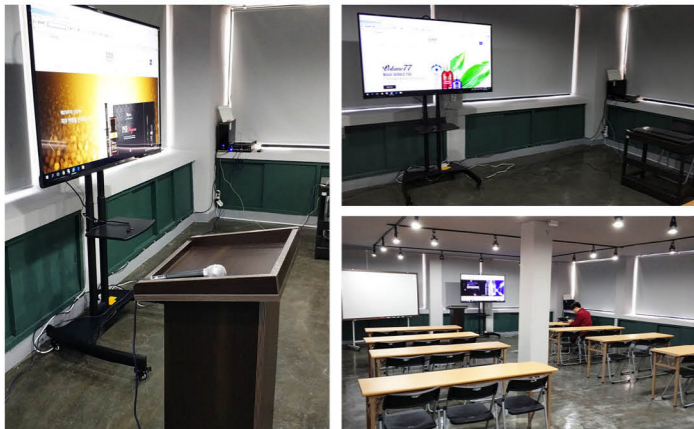
blog.naver.com/chunulumi





세미나 / 회의  
행사 / 교육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DAHO 301**  
SEMINAR & MEETING



Guest House **다호**  
GUESTHOUSE DAHO

**3F** 공간대여

세미나 · 회의  
강의 · 교육 · 모임  
행사 · 프라이빗 파티

게스트하우스 다호  
전북 군산시 영화동 22-5  
**M. 010-9725-8810**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이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지검도관**  
SONGJI KUMDO ACADEMY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의회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노력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수송점)\_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시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115 | 2020.10**

	회장·대기자	이복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동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윤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MAGAZINE GUNSAN COLUMNIST**

**매거진군산 컬럼진**



**김선화**  
군산 YWCA 사무총장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위원  
전)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ywcags@daum.net



**김용환**  
호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심의위원  
전) 군산시발전협의회 의장  
kyh@howon.ac.kr



**김은정**  
군산시성문화센터 센터장  
군산경찰서(전) 사무국장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팀장  
goni-ej@hanmail.net



**김종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전) 군산시 수도위원회 평가위원  
kjg466@kunsan.ac.kr



**김희진**  
고창군 로컬잡센터장  
전) 북새마을금협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전) 북새마을금협 사업차장  
hjinland@naver.com



**박수진**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수석부회장  
yijisusu@daum.net



**박양기**  
진포문화예술원 원장  
군산시민예술촌장  
전) 청소년위원회 환경감시단장  
pygdrum@hanmail.net



**박홍근**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살름-Info 대표  
군산소룡초등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whitelove0208@naver.com



**서영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 북새마을금협 지원센터협의회장  
sym@howon.ac.kr



**심인보**  
호원대학교 관광레저학부 교수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sib@howon.ac.kr



**안태욱**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 창업센터 센터장  
helloceo777@gmail.com



**윤영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기획부처장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youn@kunsan.ac.kr



**이강휴**  
군산 휴내과 원장  
길 위의 청년학교 이사장  
군산시 의사회 편찬위원  
jdreamer0805@naver.com



**임병식**  
연합뉴스 정치패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연구회 상임 부회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montlim@hanmail.net



**임용택**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세계인명사전 부총재  
lot@kunsan.ac.kr



**전천운**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박사  
c1000w@naver.com



**정건희**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dabogh@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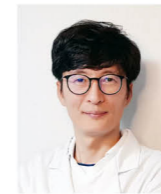
**정동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SC 32 국내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정보기술학회 부회장  
djeong@kunsan.ac.kr



**채호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장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chyosok@gmail.com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  
cheon422@jnu.ac.kr



**최연길**  
군산 노블한방병원장(전) 신명한의원 원장(전) 군산시한의학회장  
chshch@hanmail.net



**최연성**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군산발전포럼 의장  
yschoi@kunsan.ac.kr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전) 한국어유학회 회장  
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회장  
choi@kunsan.ac.kr



**황진**  
군산 중앙치과 원장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byul-bada01@naver.com

검찰개혁과 추미애

지금 이 시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이다. 그 중심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지만 미완의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다시 10년이 훌쩍 지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단의 검찰세력과 보수언론, 야당에 의해 조국 전 장관이 무너지고, 추미애 장관마저 흔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2018년 군복무 중 휴가연장 의혹과 관련된 진실공방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구언론과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추미애를 깎아내려 하고 있다.

야당 대표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직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의혹제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양상은 오직 추미애 장관 흠집 내기와 신상 털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로써, 당연히 돌봐야 할 자식을 야당 대표라는 직함과 바쁜다는 이유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

좌관이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느 것이 청탁이고 개입인지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야당은 수사 중인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검사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이어가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받아쓰는 보수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를 두고 봐야 하는가.

조국 전 장관 신상 털기에서 보여지듯 저들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나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있는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또 누군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저들의 공격은 또 집요하게 이어진다.

우리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들은 아직도 요원하다.

여기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는 다시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가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복

모과

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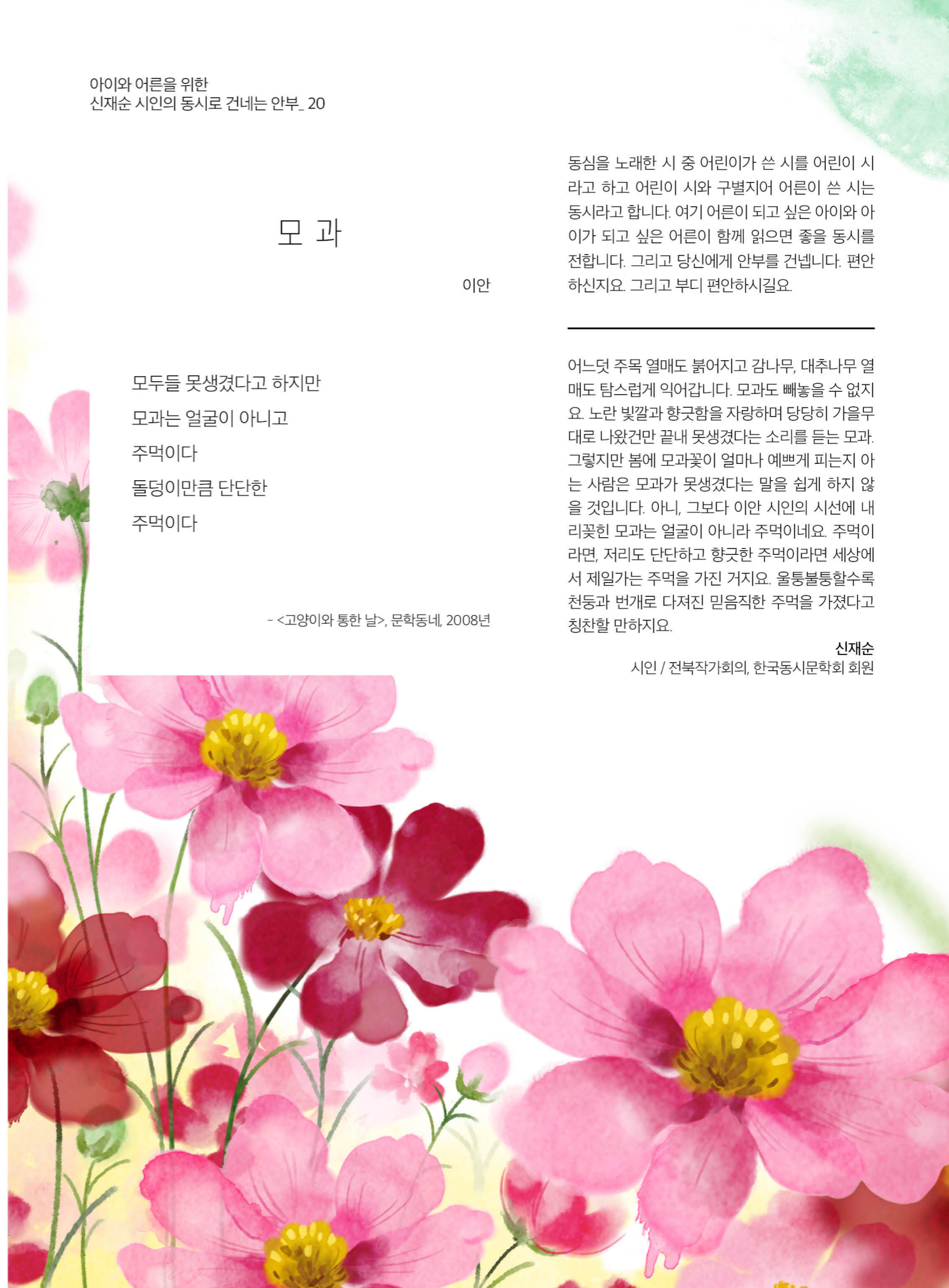
모두들 못생겼다고 하지만  
모과는 얼굴이 아니고  
주먹이다  
돌덩이만큼 단단한  
주먹이다

- <고양이와 통한 날>, 문학동네, 2008년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 시라고 하고 어린이 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 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어느덧 주목 열매도 붉어지고 감나무, 대추나무 열매도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모과도 빼놓을 수 없지요. 노란 빛깔과 향긋함을 자랑하며 당당히 가을무대로 나왔건만 끝내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모과. 그렇지만 봄에 모과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아는 사람은 모과가 못생겼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이안 시인의 시선에 내리꽂힌 모과는 얼굴이 아니라 주먹이네요. 주먹이라면, 저리도 단단하고 향긋한 주먹이라면 세상에서 제일가는 주먹을 가진 거지요. 울퉁불퉁할수록 천둥과 번개로 다져진 믿음직한 주먹을 가졌다고 칭찬할 만하지요.

신재순  
시인 / 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 부동산업계의 유튜브 '린다 정'

부동산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당당한 커리어우먼

### '온나라공인중개사' 정예진 대표

맞춤형 유튜브 방송으로 부동산시장 공략  
“최고의 명품은 자신감”  
화려한 언변과 미모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군산·비안도 홍보대사 역할 톡톡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군산지역의 장기불황 등 끔찍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열혈 여성이 있다.

그 주인공은 온나라공인중개사 정예진 대표로, 남성 못지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미모에 수려한 언변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점이자 그녀만의 비결이기도 하다.

부동산업계에서 활발한 성격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여성으로 대학 강의는 물론 유튜브 방송까지 전천후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예진 대표는 자신을 부동산업계의 로비스트인 '린다 정'이라 불러달라고 한다.





### 부동산이 천직, 정예진 대표

자신을 '부동산을 하기 위해 태어난, 부동산이 천직인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온나라공인중개사 정예진 대표. 정 대표의 첫 인상은 예사롭지 않다. 미모도 미모지만 커리어 우먼으로써의 당당함이 물씬 풍겨 나온다.

그만큼 남자들의 독무대인 부동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정 대표는 상대를 편하게 하면서도 상대를 제압하는 부드러움과 당당함을 갖춘 여성 CEO이다.

부동산을 천직이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과 아이 출산 후 처음으로 자신이 가졌던 직업은 남의 머리를 깎아 주는 미용사였다.

그러나 얼마 후 갑자기 찾아온 허리디스크로 인해 매일 서 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더 이상 미용사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쉬는 동안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장을 구한다는 모 업체의 구직광고를 보면서 부동산과 첫 인연을 맺었다.

미용사 시절에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큰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규모가 큰 물건 몇 건만 계약이 성사돼도 큰돈을 버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는 토지나 건물 등 거래 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점도 정 대표의 성격이나 적성에 딱 맞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장이라는 직함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다보니 만년 실장이라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자신의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나이를 먹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일이 나에게 천직이라는 생각과 "난 성공할 수 있다"는 집요한 신념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 결과, 1년6개월여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 18년간 노하우의 배터랑 공인중개사

정예진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지 올해로 18년째 되어가는 배터랑 공인중개사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 토지, 건물 매매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제는 매물자와 매수자의 입장을 파악해 숙련된 노련미로 부동산 거래를 쉽게 성사시킨다. 사후처리는 물론 리모델링까지 맡아 착착 진행시켜 나간다.



지금도 수년간 맺어 온 자신의 고객들과 꾸준히 인연을 맺어 가고 있을 정도로 정 대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두텁다.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고객들이 자신들보다 저를 더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을 보면서 정 대표는 이 일에 보람을 갖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저는 고객들을 상대함에 있어 고객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 상호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시고 연결해 주는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며 신뢰감을 바탕으로 믿고 일을 맡기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신만의 강점을 은근슬쩍 내비친다.

**부동산 유튜브 ‘린다 정’  
매주 화, 금 오후 4시 업로드**

정예진 대표는 최근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고객을 전국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맞춤형 유튜브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비롯해 정책, 투자, 대출, 세금에 이르기까지 ‘알찬’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1만4천여 명에 다다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군산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지역 분들은 쉽게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안 팔리는 몇 년 묵은 집들도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유튜브를 시청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한 분과 계약을 성사시킨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군산지역을 떠나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의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은 지속적인 관리와 업로드가 중요한데 정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시청자와 고객들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 정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매물 자료 뿐 아니라 군산, 특히 자신의 고향인 비안도를 알려나가는 첨병 역할까지 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비안도를 많이 홍보하다보니 그녀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비안도와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있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잘했다”며 이 일에 보람을 갖는다고 한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매물 건 뿐만 아니라 군산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부동산 매물과 군산을 동시에 홍보해 나가는 일석이조의 효과, 군산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꾸준한 공부만이 자신이 살 길**

이러한 정 대표의 화려한 성공담 뒤편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몇 차례 시련도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해 주었다면서 후배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입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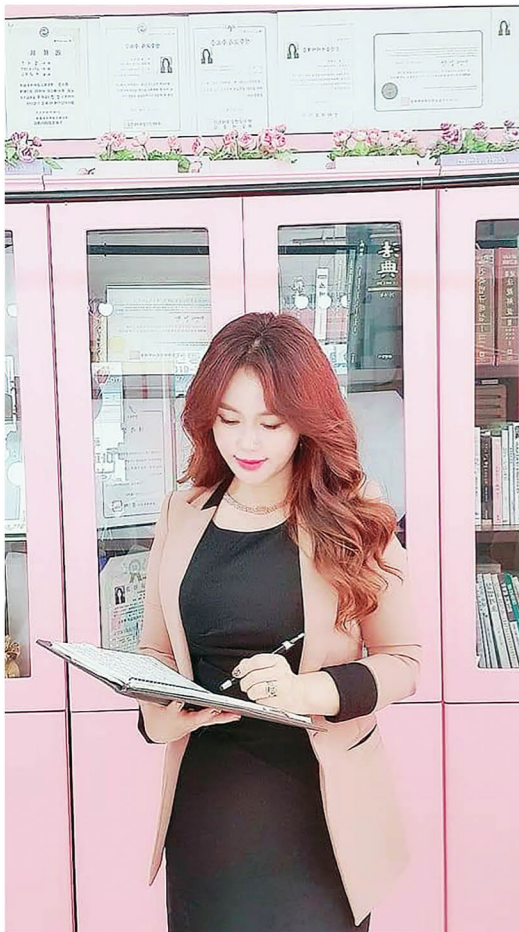


“부동산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이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직업이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부동산에 대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로서 새로운 법과 제도, 세금이나 부동산 시세 등 관련 조항들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고객은 정직하고 성실한 중개업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또 정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을 만만하게 보고 “할 일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이나 해보자”라고 덤벼드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으며, 부동산 중개업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안이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사기꾼들이 득실대는 곳이 부동산업계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꾼을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물에 따라 거래자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몇 십만 원 받아 몇 억을 변상해줄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직업입니다.”라며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는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여성들에게는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밝힌다.

단순히 큰돈이 오고가니깐 쉽게 돈을 벌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보고 길게 바라봐야 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세 등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한다.

### 비안도-가력도간 여객선 취항에 힘 모아

정예진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낸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안타깝지만 서해대학교 평생대학교에서 2019년 2학기 부동산 강의를 맡기도 했다.

또 소비자교육센터 군산지부에서 매년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 부지회장을 역임하면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부동산 강의 뿐만 아니라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여느 남자들이 못지않은 독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고향 비안도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회원을 모아 '새만금아리울발전협회'를 조직해 지역발전과 환경정화 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비안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여객선 취항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연말 가력도-비안도 간 여객선이 취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비안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다보니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아 섬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으며 정치권과 군산시, 전북도 등을 쫓아 다니며 여객선 취항을 건의해 마침내 가력도-비안도 간 여객선이 취항하게 됐다”며 고향 비안도를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한다.

### 린다 정의 꿈과 도전은 계속된다

정예진 대표에게는 아직도 꿈이 많다. 향후 계획이나 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법학 학위 취득 후 대학원에 진학해 부동산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도 여러 기관에 출강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더 배워 여성들에게 꿈을 비전을 주는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유튜브 방송으로 전국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녀의 바람이다. 적어도 군산에서만 아니라 온나라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동산업계의 대모, '린다 정'이 되고 싶다는 야심찬 계획도 그녀의 꿈 중 하나이다.



일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에게 존경받는 멋진 아내, 멋진 엄마로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꿈에 머지않아 본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자서전을 출간하고 싶다고 한다. 여기에 나이 60이 넘어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한다.

“전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지역을 위해 멋지게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위상이 올라가는 등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다. 정보화시대에 와서 사회의 많은 여러 중요 분야에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진출하여 남성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린다 정',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여성CEO 정 대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다. 그녀의 꿈을 향한 도전이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정예진 대표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늦깎이 학도로,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군산시 부지회장을 역임했으며, 금강중학교 전학 부모회장, 새만금아리울발전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나라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예진  
전북 군산시 해망로 133  
063-468-5678







## 지곡동 착한동네 카페 나눔, '미리내' 운동전도사

“생활 속 기부로 착한 마을공동체 만든다”  
착한아저씨 박훈서 목사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군산 지곡동에 위치한 착한동네 카페가 생활 속 기부인 '미리내' 운동으로 수년째 기부에 대한 인식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착한동네 카페는 미리내 가게로 커피나 음식 등을 누군가를 위해 미리 지불해 주거나 거스름돈을 기부하는 등의 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 지곡동에 가면 '착한동네 카페'가 있다. 장난감 같은 예쁜 건물에 카페, 책들로 빼곡히 쌓여있는 어린이도서관, 미술관이 있다. 카페에 들어가면 인상 좋은 착한 아저씨 박훈서 대표(군산행복한교회 목사)님이 맞아준다.

카페라고 하기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다른 분위기다. 카페 안쪽에 책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어 도서관 같은 분위기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놀 수 있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카페와 도서관이 분리되어 있어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 착한동네 카페는 박훈서 목사가 운영하는 곳이다. 옆에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건물을 하나 더 세워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개혁교회이다.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서 조립식이지만 아기자기한 건물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2015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착한동네 카페는 2013년 12월 '미리내 가게'를 전라북도 최초이자 군산 1호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카페의 특징은 '미리내' 카페라는 것이다. '미리내'는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낸다'는 착한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잔돈을 남을 위해서 남긴다. 또는 기부금 형식으로 작은 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리 내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미리 내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작은 나눔의 습관을 갖자는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장원을 찾아간다. 한 달에 몇 번은 청소년 아이들의 머리를 좀 봐줄 수 없겠느냐고 설득했고 미장원 주인 역시 기꺼이 이 선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는 동네에 '미리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동네 곳곳에서 선행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것이다!

또한 착한동네 카페는 이러한 재능기부와 후원 등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생활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 한 번이 나눔이 된다는 의미로 재능 기부 등에 대해 '생활 기부'라 부르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도모하고 착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이 착한동네 카페는 미리내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재능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자'라는 취지로 '책 놀이터', 한지공예, 근현대 한국사, 인문학 강좌, 드론, 소품공예 등의 다양한 나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미술전이 열리기도 하고, 동네 사진전이 열리기도 한다. 동네바자회도 열리고, 놀이마당이 펼쳐지기도 한다. 때론 음악가들을 초대하여 동네문화 공연을 열기도 한다. 청중은 동네사람이고, 착한동네 카페는 콘서트홀로 변한다. 평생 음악회에 가보지 못한 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부담 없이 문화공연을 즐기는 것이다.



이같이 거스름돈으로 모인 기부금은 독거노인과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효도세탁, 난방비, 미용, 반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미리내 기부는 현재까지 수백여 명이 참여하며 유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 등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박훈서 대표는 일화에 대해 짤막히 이야기한다.

“미리내 쿠폰으로 환경미화원 등과 같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기부한 따뜻한 사연, 쿠폰으로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풋풋한 사랑을 고백한 사연 등 많은 사연들로 가게 안을 꽉 채우고 있어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 사연들로 따뜻함을 한가득 안고가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나눔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미리내'의 정신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박훈서 목사는 착한동네 카페의 아저씨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빨래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에 맡긴다. 그는 세탁소를 찾아가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묵은 빨래를 '미리내'로 좀 해달라고 세탁소 주인을 설득한 것이다. 그 선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이 선행에 동참을 한 것이다.





이는 착한동네 카페가 위치한 지곡동의 특성상 원룸 층이 밀집해 있고 이웃 간의 왕래가 적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동네 이웃들의 착한 행동을 서로 격려하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진행했다고 한다.

여기에 동네 곳곳의 범죄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나 오염된 환경을 찾아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동네환경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내에 따뜻함을 전했기 때문인지 자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리내 가게에 대해 문의하며 착한네트워크 형성에 동참했다고 한다.

박훈서 대표는 “많은 군산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야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이라는 매개체로 지역에 대한 낮은 자긍심을 변화시키고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나눔으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향상시켜 다시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박훈서 대표는 서울 태생으로 해외선교 활동만 했지 군산과는 전혀 연고가 없던 분이다. 교회 개척을 하고자 2009년 군산에 내려온 것이 군산과의 인연이다.

교회 개척 5년 만인 2015년 12월 지곡동 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 ‘착한 동네’를 세웠다. 거창한 설립정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웃과 이웃이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만남 터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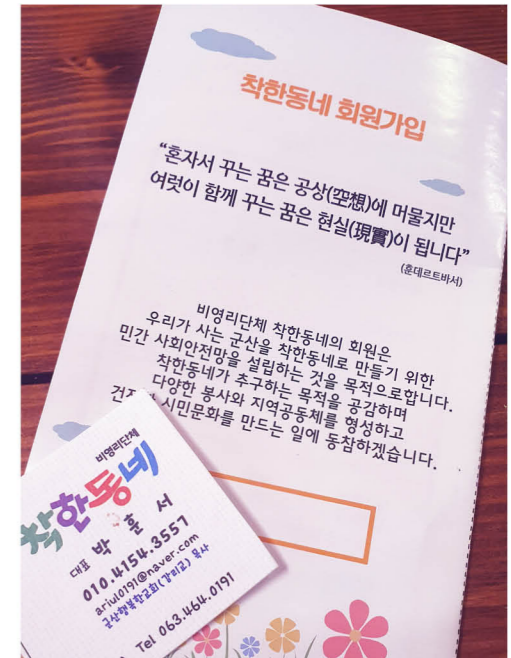


는 소망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기부 용도로 상품 값을 미리 지불하는 ‘미리내 운동’에 호기심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게 된 게 출발점이었다.

우리가 사는 군산을 착하게 만들고자 미리내 운동을 시작한 지 8년을 넘어서고 있다. ‘착한 동네’라는 이름부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은하수를 뜻하는 순 우리말, 미리내도 마찬가지다.

박훈서 대표의 말처럼 별 하나 하나가 모여 커다란 은하수를 이루듯이, 작은 나눔들이 모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박훈서 대표의 용기와 실천, 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부문화 운동 확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시 전체가 ‘착한 동네’가 되어 가길 기대해 본다.



비영리단체 '착한동네'  
대표 박훈서(군산행복한교회 목사)  
전북 군산시 상지곡1길 6  
063)464-0191





## 썸 놀 줄 아는 사람들의 동당거림~

극단 동당애와  
'썸 놀아본 우리들'

글 | 김태진(특별기고)  
JB문화재단 통신원  
kimtj2014@naver.com

한동안 잠잠한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세는 식을 줄을 모르고 끈질기게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

문화예술계는 다시금 서슬 퍼런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3~4월의 끔찍한 시기를 견뎌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점차 방역의 수위가 낮아지고, 지역 예술문화 또한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었으나 그 바람은 마치 훑날리는 바람 앞에 날아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한겨울의 매서운 눈보라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극단 동당애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동당애는 어떤 단체인가?

기본적으로는 연극을 하는 단체입니다. '동당거리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북, 장구, 가야금 따위를 두드리거나 타는 소리가 잇따라 난다는 뜻입니다. 전통악기, 특히 민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의성어입니다. 민요는 옛 조상님들의, 민중들의 회한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동당거리면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가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민중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행하자, 그런 의미에서 '동당애'라는 극단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동당거리다'의 '동당'과, '애'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저희가 그런 동당거리게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이의 삶과 만나 후련해주고, 놀아주고, 세상 중심에서 비껴나간 삶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극단입니다.

동당애에서 진행하는 토요문화학교 꿈다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저희가 연극 단체이다 보니, 많은 분께서 단순하게 연극을 가르쳐주는 방과 후 활동이나 그런 수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수업을 온 학생이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놀이'입니다. 프로그램 이름부터가 '썸 놀아본 우리들'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놀이 문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의 전자매체에 길들여 있는데다가 학교에 학원에, 놀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작 정말 놀 시간을 주면 어떻게 놀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 문화가,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는 것도 창의적으로 놀아야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놀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상호 작용을 하며 새로운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이 노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꿈다락 프로그램 '썸 놀아본 우리들'의 지향점입니다.

첫날 보편적인 '수업'을 '배우러' 오는 줄 알고 풀이 죽거나 의욕 없는 상태로 어색하게 만난 친구들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누구보다도 신나게 한바탕 놀게 됩니다. 그렇게 한바탕 노는 것이, 우리 극단 동당애의 연극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연극이라는 게 재미있게 한바탕 노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지요.





###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실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는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지역민의 인식과 편견, 그리고 지역의 역량 부족 등이 주된 어려운 점입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대부분의 지역민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지역에서 연극을 해? 서울 가서 대학로 이런 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지역에서 연극 하다 서울 올라가려는 거구나?' 이런 서울 중심적 사고관과 편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선보이고자 하는데 그런 선입견들이 연극 활동을 하는 데에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 같은 측면에서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무대공연 문화는 서울에 가서, 혹은 서울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주 무섭지요. 거기에 더해 군산이나 전북 같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공연이 없을 것이라고, 퀄리티 있고 좋은 공연은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또한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역민들이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 홍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곤 합니다.

또, 공연을 실행할 장소가 부족한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 정도만 해도 공연을 할 장소가 꽤 있지만, 군산의 경우엔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대 공연의 수요가 적다 보니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도 적고, 대관료나 시설비용 또한 커집니다. 지역의 극단은 이런 것을 부담하기에 무척 힘들지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또한 손 놓고 불평만 할 순 없지요. 자생할 수 있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들 용기와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예술이나 문화라는 게, 관이나 국가 주도로 생겨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적극적으로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저희 또한 그러기 위해 한 명 한 명, 또는 팀 단위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당애의 활동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실히 타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지난 2월에 한 차례 크게 터지고 난 뒤 다소 수습돼서 최근까지는 그런대로 랜장은 상태였는데, 요즘에 다시 2차 코로나 사태가 실시

간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위기를 계기로, 예전부터 실행은 해야 했지만 다소 미루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비 온 김에 청소한다.'라는 옛 말처럼요. 우선은 저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기본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여러 과정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1인 미디어 시대에 적응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가 큰 흐름이 되고 있지요.

저희 연극인들은,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기라는 것이, 연극은 실제 사람을 보고, 드라마나 영화는 카메라와 스태프를 보고 연기를 하죠. 연극, 드라마, 영화 모두 비슷한 연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호흡이나 기법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1인 미디어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저희도 최근에 극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관객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무대 뒤 배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만나게 될 공연을 위해 카메라가 어떻게 연극의 언어를 담을 것인가. 현장의 생생함과 연극만이 가진 연극적 상상력을 어떻게 영상으로 확장하여 만날 것인가 등 영상 콘텐츠가 되었을 때의 연극에 대비하여 빠르게 적응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겨울에는 배우 개개인이 연출부터 연기 무대소품 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연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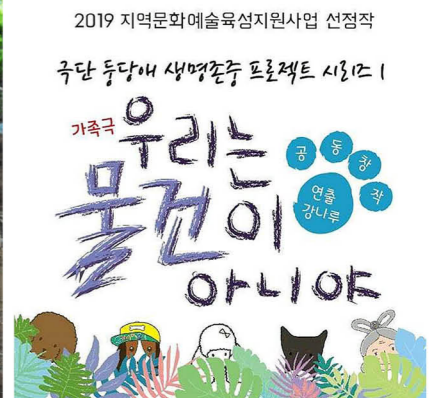
### 최근의 동당애 활동계획은?

2019년에도 선보인 바 있는 가족극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기견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탐구이며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유기견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의 세상. 그것을 통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지속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10월 15일에 온라인 공연으로 연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글을 마치며...

극단 동당애를 인터뷰하며, 전에 없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염증을 느끼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도 동당애는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와 예술 사업에서 이러한 악재는 확실히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빛나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녹록치 않은 시국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특히 극단 동당애가 생각하는 많은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아이들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쿠키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맛  
'쿠키스튜디오 밀'  
박주희 대표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말끔하고 고요하며 따뜻한 공간은 주인을 닮나 보다. '쿠키스튜디오 밀' 안에 들어서자 공간이 좁다. 수제 제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쿠키스튜디오 밀' 박주희 대표의 첫 인상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닮은 청순하고 해맑은 미소를 선사한다.

쌍둥이 엄마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쭈머' 티가 보이지 않는 박주희 대표의 쿠키와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쌍둥이를 출산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취미생활 겸 아이들 간식을 만들게 되면서 쿠키와의 인연이 이어졌다. 이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지난 2016년 명산동 동국사 입구에 디저트카페인 '달달쭈봉'을 열었다.

학생들은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 인기를 모았던 달달쭈봉을 접고 이곳 장재동 '쿠키스튜디오 밀'까지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친 쿠키는 정성과 맛이 깃들여져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쿠키스튜디오 밀'은 일반적인 명사인 쿠키스튜디오에 밀(meal)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상호를 직접 지었다. 밀(meal)은 '식사'라는 명사와 '먹다'라는 동사의 뜻이 담긴 단어로 '맛있게 먹다'라는 의미로 고객들이 맛있게 드셔주길 원하는 의미에서 상호를 지었다.

사진촬영을 위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주방을 공개하며 박 대표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쿠키가 좋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가 만든 쿠키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최고"라고 당당히 말한다.

주방은 단조롭다. 혼자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 클 필요가 없다. 그녀에게 주방은 더없이 중요한 공간이다. 오븐과 조리대, 그리고 한쪽엔 싱크대가 있다. 이것만 있으면 최고의 맛난 쿠키를 만드는데 충분하다. 주방은 그녀의 일터이기 전에 삶을 보다 아름답게 응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래된 일이지는 하지만 자신의 솜씨가 인정을 받을 땐 그 기쁨이 배로 된다. 처음 문을 열었던 명산동 '달달쭈봉'을 4년간 운영하면서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이 온라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이사를 가기 위해 간판을 내리던 날, 여고생 한 명으로부터 감동의 편지를 받았던 기억은 생생하다. 이사를 가게 되어 이곳에서 더 이상 쿠키 맛을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여고생의 편지는 감동이면서 격려의 글이 됐다.

박주희 대표는 “음식을 만드는 기본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디저트 맛은 직접 드시고 평가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유기농 밀가루와 방부제가 없는 제품만을 사용하기에 자신이 만든 쿠키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아이들도 먹고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쿠킹스튜디오 밀”이라고 덧붙인다. 박 대표의 당당함이 물씬 풍긴다.

쿠킹스튜디오 밀은 그날그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문 예약제와 인터넷 주문판매로만 운영하다보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쿠키는 없다. 1인 사장 겸 직원인 작은 쿠키점이고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페나 커피숍 납품, 전시판매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제빵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날 만든 제품은 바로 소비가 되어야 하는 제과 특성상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시간에 나와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 케어와 살림을 해야 하는 주부라는 또 하나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예약제가 최선이라는 판단에 주문예약만 받고 있다.

쿠킹스튜디오 밀의 자랑이라면 어디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는 '에그 타르트', '호두 타르트', '마들렌', 쿠키 등이 있다.

바삭한 타르트지에 촉촉한 필링 100% 핸드메이드 에그 타르트는 맥신 유기농 밀가루와 뉴질랜드산 버터를 넣고 만든 타르트지 필링에, 계란은 동물 복지인증을 받은 유정란을 사용하며 동물성 생크림과 마다가스카르 산 바닐라 빈을 넣어 만든다.

촉촉한 호두 타르트는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만들어지며 호두 타르트의 가장 기본인 호두는 최상급의 캘리포니아 산 햇 호두를 사용한다. 호두를 받아 찬물에 한번 씻은 후 끓는 물에 넣었다 찬물로 이물질이 없이 깨끗이 씻어낸 뒤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내고, 쌀가루와 뉴질랜드 앵커 버터를 넣어 타르트지를 만든 후 필링과 함께 구워낸다. 촉촉하면서 입 안 가득 호두향이 가득한 호두 타르트는 디저트 라기보다는 한 끼 든든한 식사대용이다.

바닐라 빈 마들렌은 유기농 밀가루와 고메버터 마다가스카르 산 바닐라 빈을 넣어 바닐라 향 가득하다. 프랑스에서 구입한 플렉시 판에 구워 기존 마들렌보다 사이즈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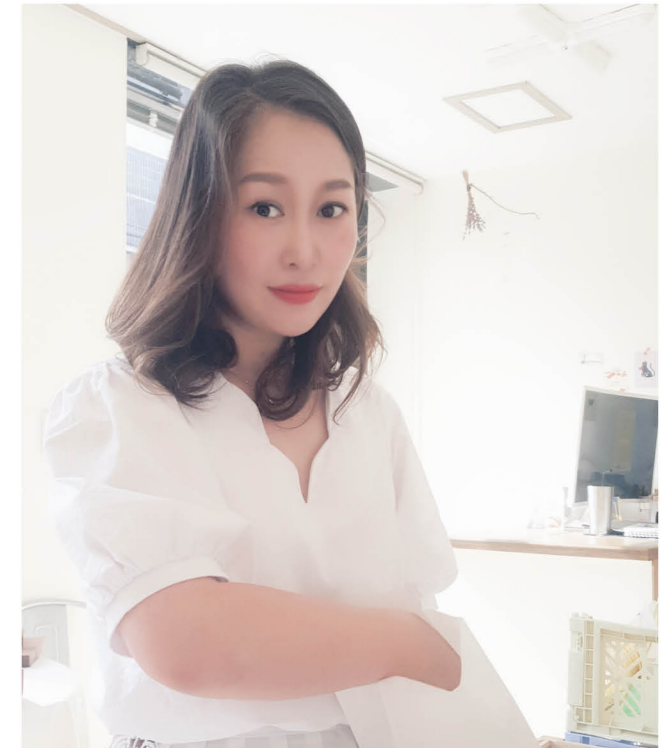
인터넷 주문은 12시 이전에 주문하게 되면 다음날 배송이 되고, 12시 이후 주문 시에는 2일후 배송이 된다. 모든 택배는 식품 특성상 아이스박스 포장돼 배송된다. 그리고 제품을 받으신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기를 권고한다. 냉장 보관 2일,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다.

박 대표는 이처럼 쿠키, 타르트, 케이크, 구움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창업반이나 출장 강의, 어린이집 등 수업을 함께 하고 있다. 수제쿠키의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다.

소소한 꿈이지만 “현재에 만족하고 있어 가게를 키우거나 확대할 생각은 없지만 제 제품의 맛을 인정해 주고 주문이 폭주하면 그때 가서 직원도 두고 가게 평수도 늘리고 싶다”며 슬쩍 속내를 드러낸다.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좋은 쿠키와 제과들을 드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박주희 대표는 많지 않은 수제 쿠키점 중 자신만의 독특한 비법과 맛을 통해 꾸준히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쌍둥이 엄마의 쿠키사랑과 도전의 꿈은 계속된다.

**쿠킹스튜디오 밀**  
대표 박주희  
전북 군산시 동팔마길 36  
아이플러스시티 상가 103동 102호  
010-9189-6196



# 50년 전통, 한일어구상사 이태용, 조옥만 부부의 특별한 공간

각종 어구품 제작... 군산 유일 전복천년명가 선정  
가업 물려받은 아들들과 꾸준히 한 길 걷고파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 군산항을 보면서 ‘참 크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러 지금 보니 군산항도 작아졌고 우리도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이 더 많았어요.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우고 우리 가게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군산항이 작아진 것은 그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일 것이다. 1970년 내항 부근에 ‘한일어구상사’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반 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이곳은 건재하다.

한일어구상사는 이태용(77), 조옥만(73) 부부의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각종 어망과 로프, 통발, 삼각망, 해태망, 어구품 등을 제작 납품하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어업 외길을 묵묵히 걸어 왔다.

1970년 5월, 이태용 대표는 부산의 어구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다. 군 전역 후 군산으로 올라와 지금의 가게를 활짝 열었다. 그 당시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이 일본에서 제품을 도입했다. 이태용 대표는 1960년 초부터 부산 공장에서 일했던 기술이 있었다.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는 밑바탕을 토대로 부단히 개발에 착수했다.

“30년 전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서산, 영광, 고창, 부안, 서천, 대천 등 각 지역별로 어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어족들을 개발, 연구하고 공장에서 어구를 만들었어요. 50년 동안 꾸준히 한 일을 하니 장항 등 타지에서도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부부는 이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이태용 대표의 아내 조옥만 씨의 내조도 빛을 발했다. 조 씨는 가게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새벽잠을 자며 직원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는 등 남편의 동반자로서 함께했다. 그래서일까, 이태용 씨에게 아내의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다. 가게를 챙기면서 자식들의 양육까지 신경써야 했으니.

현재는 아들 이성권, 이재현 대표가 부부의 가업을 물려받았다. 아들들은 해망동에 따로 창고를 두고 젊은 감각을 발휘해 블로그를 활발히 운영하는 등 신세대 경영을 이어 오고 있다.







매장을 채운 각종 어구



이성권 대표가 운영하는 어구나라는 낚시용품, 선박기자재, 각종 로프, 각종 통발, 조개망 및 마대류, 사클, 체인 등 각종 어업용품을 취급한다.

이재현 대표의 한일어구상사(해망동)는 어망, 로프, 각종 철물, 스텐, 와이어, 연승, 통발, 골프망, 육해상조립 어망 일절, 투망, 미꾸라지통발 등을 도·소매한다.

“아들들은 휴대폰에 매장의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블로그를 통해)로 올리는 등 신세대 경영에 앞장서고 있어요. 확실히 부모 세대인 우리들보다 가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신속 정확해요. 90년대 후반 군산에 정착해서 부모의 일을 배우기까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결심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게 대견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준다면 좋겠어요.

한일어구상사는 최근 '전북천년명가'에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선정하는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도내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외길을 걸으며 명품을 만들고 있는 전북천년명가에 군산 최초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선정 배경에는 50년 동안 각종 어구품 개발과 생태 조사, 실습 교재를 위한 어구품을 제작 및 납품해 서해안 어획량 증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스토리가 있다.

“이곳은 저희에게 떨려야 떨 수 없는 공간입니다. 제품 하나하나 손때 묻지 않은 게 없어요. 만드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잘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 힘든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지속된 폭우로 인한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 '언젠간 다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오랜 세월 축적된 기술이 있고, 그 일을 자식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아들과 함께 꾸준히 이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천년명가에 선정된 것처럼 이곳이 백년을 넘어 천년을 이어 명가로 발전하고, 군산의 어획량 증가에 일조한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한일어구상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59

063)445-4473

평일 08:00~19:00 063)445-8292



# 한글날 斷想

## ‘식자들도 헛갈리는 갈팡질팡 우리말’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올해는 훈민정음 창제 574주년을 맞는 해이다. 문자의 조합에 있어 세계적으로 그 과학적 우수성이 입증된 한글, 이를 통해 우리의 조상들은 어려운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쉽고 편리한 표기 방식을 갖게 되었으니 이를 창안한 세종대왕의 그 혜안에 놀라울 뿐이다.

말과 글은 본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하는 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어문 역시 수백 년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변천을 거듭함으로써 옛 선인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특히 정체불명의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조합된 말을 듣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사람은 겉모습을 아무리 고급스럽고 근사하게 꾸미고 타인을 흉내 낸다 해도 근본적으로 타인과 다를 수밖에 없는 개인적 특성이 있으니 바로 그가 사용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누구든 그가 사용하는 말투는 그 당사자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간단한 말투 하나만으로도 어느 지방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지, 교육과 지성의 수준 등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연령대의 사람인지 판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확한 단어와 품격 있는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수 있다 하겠다.

자연계에서 모든 생물은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용어)역시 지난 그 시대상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고 있어 이에 적응하는 것으로 지적 수준과 연령대가 가능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변화에의 적응이 빠른 경우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해와 구사력이 뛰어나 대체로 나이에 비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로 작용하기도 하거니와 그런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이미 용도 폐기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등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일이다.

또한 아직도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 쓰던 일본어, 예컨대 스기다시(식사 전 곁들이 음식), 와사비(고추냉이), 다대기(다진양념), 노가다(막노동), 소바(메밀국수), 요지(이썬시게), 오뎅(어묵), 기스(흙, 상처), 겐세이(견제), 야지(놀림)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고 채소(菜蔬)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굳이 야채(野菜)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미 25년 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국민학교라 한다거나 베트남을 월남, 독일을 서독, 러시아를 소련이라 하는 등 좀처럼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가 아무리 옷을 짧게 꾸며 입었다 해도 의식은 이미 지적 욕구가 상실된 노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진입해선지 언제부턴가 우리말과 외국어가 접목된 이상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어 기관, 단체명이나 상호 등에도 남용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글이라는 독보적 문자를 가진 나라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억지스러울 정도로 외국어를 접목해야만 유식하거나 세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언어사대주의의 한 단면일 뿐으로서 예컨대 00테크, 00아트, 00케어, 00커뮤니티, 00피트니스, 00클리닉, 00키즈, 00헤어, 00스파 00텔 등등은 다 예쁜 우리말이 있는 것들이다.

일상에서 대체로 잘 못 쓰고 있는 말들을 보면 극히 상식적임에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일부 식자층에서도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 가르치다 / 가리키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는 뜻으로, ‘그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따위로 쓰이는 말로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리키다'로 쓰는 경우를 보게 된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알리다는 뜻으로서 가르치다와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 이 자리를 빌려서 / 이 자리를 빌어서

식장이나 행사장에서 연사로 나온 사람의 인사말 중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자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데 아직도 '빌어서'라고 쓰는 일이 빈번하다.

#### 삼가다 / 삼가하다

'~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어떨까, 삼가하다는 '삼가다'가 표준어로서 ~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로 써야 맞다. 따라서 '삼가하고는' '삼가고', '삼가 할 것'은 '삼갈 것'으로 표기해야 어법에 맞다.

#### 설레다 / 설레이다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릴 때 가슴이 설레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설레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설레임은 설렘, 설레이서는 설레서로 써야 된다.

#### 날아가다 / 날라가다

'날아가다'는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라는 말로 새가 날아가다,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다 등으로 쓰는데 이를 날라갔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날다와 나르다는 엄연히 쓰임새가 다르며 나르다는 물건을 나르다 따위로 쓰는 말이다.

#### 찌개/찌개. 육개장 / 육계장. 무 / 무우

극히 대중적 음식인 ~찌개를 표기함에 있어 이를 ~찌개로 표기하거나 육개장의 경우 육계장이라 하는 등 엉터리 맞춤법이 아직도 눈에 띈다. 이는 예전에 개고기로 장국을 끓여 먹던 시절 일부 양반층 등 개고기를 기피하는 사람 사이에서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어 끓임으로서 육개장이라 한 것으로 육계장은 전혀 출처 불명의 말이다. 또한 무우는 예전 용어로서 현재는 '무'가 표준어이며, 이밖에도 잘못 쓰이는 말들로 '삼수갑산'을 산수갑산, '양수겸장'을 양수겸장, '복불복'을 복결복, 소파(Sofa)를 쇼파로 말하는 것 따위를 들 수 있다.

#### 신조어

최근 10여년 사이 특히 청소년층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통용되고 있는 신조어의 경우 재미있어서, 말이 간결하다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신조어에는 은어, 비속어,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지조차 불명확한 단어로 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신조어는 온라인을 무대로 유튜브, 트위치 등 주로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방송에서 범람하면서 점차 우리 일상생활로 번져들고 있는데 인성과 가치관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변형된 신조어를 먼저 접하게 됨으로써 맞춤법이 틀리는 건 예사인데다가 신조어 안에 내포된 부정적 뜻을 먼저 알고 사용하는 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조어는 초기만 해도 대충 뜻의 짐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도 많았으나 최근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억지스럽고 장난스럽게 조합된 말로 진화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우리 한글에 대한 자해적 폭력으로써 느껴질 정도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의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금수저(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유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흙수저(가난한 부모를 둔 어려운 가정의 사람), N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에다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꿈, 희망, 그리고 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20~30대 세대), 헬조선(열

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사회를 지옥에 빚낸 말), 캥거루족(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 이케아세대(교육수준이 높고 스펙이 뛰어나지만 불안정한 고용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78년생 전후의 세대. 가격대비 좋은 품질의 가구 이케아에 빚낸 말이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 문송합니다(기업에서 이과(理科)의 취업문은 넓은 반면 문과(文科)는 기피되는 현실을 빚낸 말, 즉 문과여서 죄송하다는 뜻), 올로족(You Only Life Once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인생은 한 번 뿐이므로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뜻),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 즉 외모보다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내적 매력을 가진 남자), 뇌순남(지식이나 교양은 다소 부족하나 순수하고 인간미가 풍기는 남자), 뇌피셜(뇌와 Official(공식입장)의 합성어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개인적 생각이 마치 공인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 나심비(나의 심리+가성비, 즉 자신이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비한다는 뜻), 혼자 밥먹는 사람,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짐), 낚기빠빠(낚 데 끼고 빠질 데 빠져라는 말로 눈치 없이 굴지 말라는 뜻)등도 보편화 된지 오래다.

이밖에도 얼죽코(얼어 죽어도 코트만 입음),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멋의 메이크업이나 의상 트렌드), 찢잘싸(찢지만 잘 싸웠다),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자날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핍프(자꾸 물어보는 게으른 사람) 등등 언뜻 들어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도 범람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가졌다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말을 정확히 배우고 구사하려는 노력보다는 한낱 장난거리로 삼는 것은 분명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자존감을 내팽개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하겠다. 필자는 과문함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자기나라 말에 외국어를 섞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느라 애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확한 단어, 주어진 상황과 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여 말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말이 너무 빠르거나 격에 맞지 않는 말과 습관적인 비속어, 자기 개인의 알팍한 신념이나 경험이 절대적인 것인 양 우기는 태도, 남의 말을 경청하기 보다는 상대의 말을 끊고 끼어들거나 습관적으로 '거시기'라는 단어를 쓰는 애매모호한 말투는 상대에게 불편 감을 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품과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 차분히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와 내용을 생각해 뒀다가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정확히 알고 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맞춤법도 그렇지만 특히 띄어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이는 쉬운 단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글자를 기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세계에는 아직도 자체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이 많다. 그들에게 우리의 한글 전도사들이 나가 한글을 보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한글은 원리만 터득하면 배우기가 쉬운 문자로써 세계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말을 기념하는 국가는 있지만 글자를 기념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 문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말을 더욱 아끼고 정확히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종대왕의 후대로써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요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한다.\*



## 군산의 자랑, 군산의 곱창 메카 막창일번지 김영철 대표

뚝심의 새나이가 일궈낸  
군산의 소곱창 맛집

군산형 소곱창 브랜드를 꿈꾼다.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 군산의 자랑, 군산의 소곱창 메카

소 곱창을 좋아하는 마니아라면 나운동에 위치한 '막창일번지'를 알고 있고, 한번쯤은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몇 년 사이 막창일번지는 군산을 대표하는 소 곱창 식당으로 이름이 나았다.

군산의 대표적인 소곱창 맛집인 '막창일번지'를 방문했다. 얼마 전 새로이 이전한 가게는 더 넓어져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식당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꽉 차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막창일번지'는 소, 돼지 막창 전문점이다. 10년을 한결 같이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단골들도 많고 군산의 대표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막창일번지가 군산의 자랑, 군산의 소곱창 메카로 자리 잡기까지 김영철 사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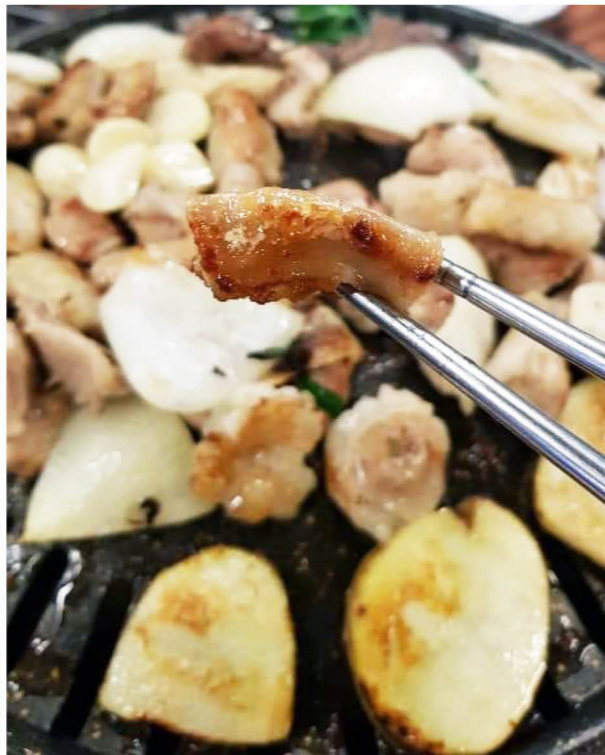
### 군산의 대표 맛집 등극

막창일번지가 군산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평가받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었다. 8년 전 지곡동에서 지인과 동업으로 가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막창일번지는 어느 도시에는 하나 정도는 있음직한 그저 평범한 식당이었다.

2014년 독립해 나운동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막창일번지의 시대를 열어나갔다. 까다로운 군산의 마니아들에게 맛도 맛이지만 명성을 얻기까지는 계기가 있었다. 다음 아닌 TV영향이 컸다. 백종원의 '삼대천왕'이나 KBS의 '6시 내 고향' 등 각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식당이 아니다.

2018년 6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47회에서 연예인 '화사'의 소곱창 먹방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전국에 곱창 대란이 생기면서부터이다. 이 날 화사는 소곱창에 곱창전골, 볶음밥까지 추가하며 '레전드' 급의 먹방을 선보였다. 이때부터 막창일번지에도 손님들이 대기번호를 타고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이용해야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일손이 모지라 알바를 채용해 일을 할 정도 힘들었지만 김 사장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작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를 계기로 소공동 먹자골목에 2호점을 개설했고, 올해 6월에는 3호점인 수송점 '군산곱들이'를 오픈해 군산의 상권 밀집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월 본점을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 소곱창 어떻게 먹어야 맛나지?

소곱창은 기가 허약한 사람이 섭취하면 기를 보충해 주고, 또 산후조리에도 특효가 있다. 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식품인 곱창은 씹는 맛도 쫄깃하며 술안주 시 분해 작용이 뛰어나 위벽보호, 알코올 분해, 소화촉진 등의 작용에 좋으며 여성들의 건강 다이어트식에 적격이다.

소막창은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문헌에 막창은 정력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오장을 보호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으며 산후조리에도 특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뇨, 술 중독으로 인한 몸의 독성 해소, 장의 해독, 살균, 이뇨, 피부미용, 피로회복에 막창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

막창에는 영양소인 칼슘함량(100g당 112mg)이 소고기(100g당 19mg)보다 높아 어린이에게는 성장부진, 구루병에 성인에게는 골다공증, 골연화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막창일번지가 좋은 이유는 크기가 큼직큼직하다. 그리고 양도 적지 않게 준다. 소막창은 소 한 마리당 200g에서 400g, 돼지막창도 한 마리당 250g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적게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 항시 냉동시설을 갖추고 수급에 만전을 기한다.

막창일번지의 주 메뉴라 할 수 있는 소곱창과 특양구이는 1인분 150g에 17,000원을 받고 있으며, 소막창과 대창구이는 200g에 14,000원이다.

10년간의 노하우로 잘 손질된 소곱창을 불판에 구워 '막창일번지'만의 된장소스에 찍어 먹는다. 김치와 콩나물 파 무침도 일품이다. 소곱창과 어울리는 밀반찬만 내놓는다. 된장찌개와 계란찜도 별미다.

소곱창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막창일번지의 맛을 또 한 번 느낄 차례다. 추억의 도시락이나 주먹밥, 라면은 필수 코스다. 추억의 도시락을 시켜 몇 번 흔들면 섞인다. 나름 섞는 방법이 있고 힘도 꽤 든다.

주먹밥은 돌돌 말아 바로 먹어도 좋지만 구워먹는 재미도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후식 밥은 늘어붙어 먹는 게 누룽지다. 라면 역시 뒤끓이 작렬한다.

### 산전수전 다 겪은 험난한 그의 인생

김영철 사장을 만나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 40초반의 젊은 나이이지만 성공의 꼭짓점까지 오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은 청년이라는 점이다.





체격이 워낙 커서 과거에 운동선수라는 말이 믿기 어렵지만 그는 학창시절 수영선수 출신이다. 군산중 시절 수영 꿈나무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며 실력을 키워 나가 전북 체고에 진학했으나 쉽지 않았다. 고교를 졸업하고는 선수생활을 접고 지도자의 길로 나섰다.

신풍초 수영 강사를 시작으로 남원 용성초에서 수영지도를 했으나 이도 오래 가지 못했다. 결혼과 더불어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앞서 수영 지도자의 길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다른 길을 찾아 영업사원, 막노동, 주유소 직원, 기아특수강 협력업체 직원, 아파트 현장 목수 보조원, 선반 깎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섰다.

비용항 상가가 조성될 즈음에는 비용항 도소매시장에서 젓갈류 도소매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처가인 익산 만성에 귀농해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농사일도 김 사장에게는 맞지 않았는지 뜻하지 않게 기회는 찾아왔다. 2013년 지인과 함께 동업으로 소곱창 식당을 하기로 한 것이다. 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 쉽지 않았으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도전할 해 본 것이다.

1년 만에 독립을 해 나운동에 막창일번지를 오픈하고부터 김 사장의 인생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다.

###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

김영철 대표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영 유망주로서 열심히 훈련했고,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방향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만큼 청년시절을 힘든 과정을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기에 김영철 대표는 자신이 번 일부는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불임성도 강하다. 통통한 그의 겉모습만을 보서는 그를 평가하기 어렵다. 막창일번지를 운영하며, 금강로타리클럽이나 나눔프렌즈, 수시탑포럼 등 봉사과 사회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어깨동무'와 금강로타리클럽에서 실시하는 구역전 경로식당 급식봉사는 김 대표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지난 7월에는 금강로타리클럽에서 긴급 생활지원 의 일환으로 열악한 환경과 강직성 척추염으로 척수장애의 불편한 몸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유튜브로 활동 중인 '좀비팝' 님의 가정에 비상식량 지원과 해충박멸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월과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헌혈 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과 기부 봉사도 참여했다.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시면서도 군장대 청소년교육지도학과에 입학하여 청소년에 대한 공부와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김 대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막창일번지**  
본점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38-11 / 063-465-9501  
소통점 전북 군산시 소룡동 칠성로 163 / 063-465-9507  
수송점 군산시 동수송길3길 16 (군산곰돌이) / 063-465-9503



# 차별화된 앱, 배달아울렛 '원우' 개발

교촌치킨 미장수송점 **형남중 대표**  
끊임없는 도전과 독심으로 성공신화 일궈

글 | 한경진(특별기고)  
군산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회장  
8321827@hanmail.net

한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교촌치킨 미장수송점 **형남중 대표**. 그의 40년 일에 대한 열정과 가족애 그리고 배달 앱 '원우' 개발까지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역경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 그의 삶, 눈웃음이 매력적인 듬직한 상남자, 그러나 알고 보면 가족 밖에 모르는 가족 바보인 교촌치킨 미장수송점 **형남중 사장**을 만나보았다.



## 나의 영원한 0순위는 가족

**형남중 대표**의 가족애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의 영원한 0순위는 가족”이라며 쑥스러워하며 말문을 여는 **형남중 사장**은 자신보다 연상인 아내를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내와는 배드민턴 동호회 내 산악회에서 매월 함께 등산을 하며 가까워졌고 그의 열렬한 구애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아내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점이 많아요. 당시만 해도 아직 보잘 것 없는 나를 만나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던 모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피해사례들을 보면서 **형남중 사장**은 본인이 가해자라도 된 듯 예금주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며 안타까워했는데 그때 많은 걸 보고 느꼈다고 한다.

“첫 직장을 잃은 자괴감과 저축은행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저희 친형이 농수산물 중도매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했더니 거래된 농산물을 배달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일을 권해주셨어요.”

새벽 일찍 공판장에 나가야 하는 관계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되다보니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당시 학교에서 계약직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이를 출산했고 아내의 건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첫 아이 출산 때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첫 출산의 기쁨보다 아이를 보니 너무 미안했어요. 아내의 몸조리며 출산준비 등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가끔 큰아이 재원이를 보면 그때 생각에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상기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 새로운 도전, '교촌치킨'

형남중 사장은 우연한 기회에 교촌치킨 브랜드를 알고 난 뒤 교촌치킨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 가진 돈도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해 '교촌치킨 나운점'을 인수했다. 거의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었다고 한다.

형 사장의 아내는 육아를 하며 가게 일을 도왔고, 형 사장은 직접 배달을 하며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보니 교촌치킨은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2012년 미장 수송점을 오픈한데 이어 2018년에는 구암조촌점을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지난해 나운점을 매도하고 현재는 미장수송점과 구암조촌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고생도 많이 해서 그런지 교촌치킨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상기하며 조금씩 남을 위해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인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닭 한 마리에 100원씩 떼어서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 make like better / 파트너 사업 유니시티(Unicity)

교촌치킨은 구암조촌점까지 확장하며 성공을 이루었지만, 형 사장의 몸 상태는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밤낮이 바뀐 생활들을 오래하다 보니 방치해 두었던 몸의 작은 병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 안 될 정도로 영아 백내장(嬰兒 白內障)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수술도 한쪽씩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한쪽 눈부터 먼저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유니시티(Unicity)를 만나게 되었고, 천연의 제품으로 약과 같은 약리작용을 하고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PDR에 등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말에 의심 반 혹은나 하는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복용하자 작은 변화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대쪽 눈의 백내장이 좋아지고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유니시티 제품을 복용해 보고 많이 좋아진 저의 경험이 가족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그의 아내가 이 사업에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교촌치킨에 이어 유니시티 사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형 사장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

### 형남중 사장의 도전은 진행형 차별화된 배달 앱 서비스 배달 아울렛 '원우'

“저는 교촌치킨 영업을 하며 배달 앱을 잘 사용하고 활용한 사업가입니다. 배달 앱에 관심이 커지면서 배달 앱을 통한 이익과 교육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좋은 플랫폼이지만 더 나은 이익창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 끝에 형 대표는 창업진흥원의 교육을 통해 성공만 좇던 지난날과는 달리 하고 싶은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기 시작했다.

배달아울렛 앱 '원우'는 지금까지의 앱이 주문을 기다리는 시스템이었다면 원우는 가맹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타임 세일란에 노쇼, 마감임박, 주문오류, 당일판매 식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안하여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단체주문이나 아침 주문이 필요한 경우 매장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공급제안을 할 수 있는 국내최초 역제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앱이다.

배달 앱 '원우'는 10월 초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 쪽은 유니온 제로 앱의 2차 공모를 통해 서울시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1차 서비스는 전라북도에

서 먼저 10월 초부터 시작된다.

배달아울렛 앱 '원우'에는 현재 제너시스 그룹 BBQ 백영호 전 대표이사가 고문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친형인 형성래 씨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항상 실행에 옮기는 사고의 전환, 삶의 방식이 형남중 사장을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했다. 아직도 그의 성공신화는 멀었지만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배달 앱 '원우' 개발까지 형남중 대표의 끊임없는 도전과 독심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 본다.

한편 형남중 사장은 올해 초부터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CEO 과정에 등록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전라북도경제인연합회 군산지부 회장, JC 활동, 월명로타리 총무, 군산요식업협회 이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교촌치킨**  
대표 형남중  
전북 군산시 동수송 4길 8 미장수송점 / 063)462-1994  
전북 군산시 공포로 24-5 106호 구암조촌점 / 063)445-8292



**한경진**  
군산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회장  
군산시 학부모교육 자문단  
임피중학교 학부모 회장  
8321827@hanmail.net





옷장사만 32년,  
올포유 수송나운점  
임구환 사장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성공한다  
나운1등 통니일도 솔선수범 척척

글 이복 (백운 회장 대기자)  
bok9353@hanmail.net



요즘처럼 장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도 처음이다. 지난 IMF 때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사태가 몇 달째 지속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속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에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투자하고 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기도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와중에 32년째 옷 장사만으로 외길을 걷는 분이 있다. 올포유(All for you) 수송·나운점 임구환(58세)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장사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남겼다는 임 사장은 장사꾼 기질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묵묵히 헤쳐 나가고 있다.

얼마 전 캐주얼 남녀 의류 브랜드인 올포유(All for you) 나운점이 이전 확장 오픈했다. 오픈과 함께 매장 방문객에게 마스크 증정은 물론 10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스카프, 15만 원 이상 구매는 면기 세트, 20만 원 이상 구매는 후라이팬을 증정하는 등 각종 사은 행사를 마련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임구환 사장.





### 신영동 15평에서 시작한 옷가게

임규환 사장은 32년 전인 1989년, 당시만 해도 잘 나가던 상권이었던 신영동에서 보세 옷가게를 처음 열었다. 군산과는 인연이 없던 임 사장은 임실 태생으로 군산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교를 졸업하고 군산수산전문대에 입학하고부터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배를 탔지만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6개월가량 배를 타고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결국 장사였다. 젊음과 패기 하나로 신영동에 15평짜리 월세를 얻은 임 사장은 서울행 새벽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 동대문, 남대문, 평화시장 등 도매시장을 다니며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골라 구입했다. 새벽내 시장을 돌며 구입한 옷들은 어느새 대형 봉지 2~3개가 되고, 이를 들러 메고 다시 군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힘은 들었지만 옷 장사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매주 서울을 오가며 피곤함도 잊은 채 옷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꾸준히 찾아오는 고객도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가게가 잡혀갔다. 이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 임 사장의 앞길엔 뜻하지 않게 IMF가 터졌고, 이듬해 임규환 사장은 보세 장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산으로, 해외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건강과 레저문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명품이나 브랜드 상표에 쏠리게 되면서 더 이상 동대문, 남대문 상표로도 승산이 없다는 생각에 1999년 브랜드 매장을 열게 된 것이다.

남들보다 앞선 생각으로 그는 2개의 브랜드를 거쳐 2006년 올포유 나운점을 오픈했다. 40~50대 등 중장년층 고객을 사로잡은 올포유는 탄탄한 브랜드 파워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송동 상권이 새로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춰 6년 뒤인 2012년에는 수송동 시장을 내다보고 올포유 수송점을 오픈했다.

###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성공한다

30여 년간 옷 장사만을 한 임규환 사장은 장사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다. "장사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성공한다."라며 임규환 사장은 자신이 몸소 체험한 산경험에서 체득했다고 한다. 보세 옷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보면, "브랜드 파워도 존재하지만 결국 자신을 믿고 가게를 찾아주고, 결국 이런 손님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돈에 대한 생각도 단호하다. "돈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임 사장은 당장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사람과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에게 있어 장사는 결국, 돈 보다는 사람이 남는 것이다.

### 나운1동 동네일도 솔선수범

손님이 이웃이고, 주민이다 보니 임 사장은 동네일에도 솔선수범 나선다.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을 한지는 벌써 10여년에 가깝고, 5년 전부터는 쉽지 않은 통장을 맡아 어려운 주민을 살피는 것은 물론 동네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로 변 상가들의 모임인 '나운상가번영회' 제2대 회장을 맡아 상가 활성화와 번영회 발전에도 기여했고, 현재는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나운1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건신협 이사과 군산시 기공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며, "살기 좋은 나운1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한다.

32년째 타지인 군산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자신을 믿고 찾아 준 고객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임규환 사장은 '손님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오늘 하루도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올포유 (All For You)**  
대표 임규환  
전북 군산시 대학로 317 나운점 / 063)463-9693  
전북 군산시 수송북로 7 / 063)468-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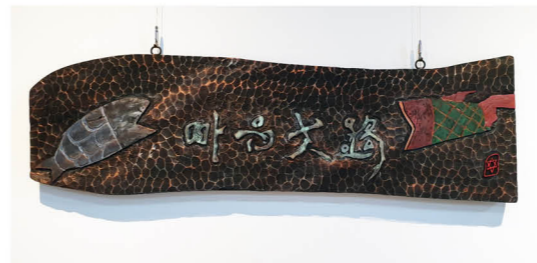
## 우두머리(牛頭머리) 展을 마치며, 그리고 지관(止觀)

우정(宇庭) 전승택 작가  
전각(篆刻)과 서각(書刻)의 전통 계승

글 | 최승호(자유기고가)  
gsport11@naver.com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이 엄청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반에 걸쳐 가히 혁명적인 변화와 문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 인종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삶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팬데믹은 인류 문명사의 정해진(?) 숙명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군산에서 근래 보기 드문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우정(宇庭) 전승택 작가의 '우두머리' 개인전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선 전각(篆刻)과 서각(書刻)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예술적 지평으로 확장한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했다. 특히 작가의 고향인 군산을 알리는 '어청도', '군산', '군산의 맛과 맛' 등의 작품은 우리 군산의 색깔을 멋지게 드러낸 작품들로 관람객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관람 인원 제한으로 정상적인 전시 진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시 첫날부터 평균 100여 명 이상이 관람하고 특히 지난 '군산야행'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아주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8월 말일까지 휴관이 결정되었다. 다소 아쉽기는 하다.

작가는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우리말 이름으로 예로부터 '소머리 산'으로 불러왔다. 다시 말해 소머리는 우두(牛頭)머리이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두머리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문명국의 리더로 우뚝 설 것이다. 지금 어려운 시기 또한 우두머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라고 전시주제를 짧게 설명한다.

얘기가 좀 길었다. 필자가 관람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작품은 '지관(止觀)'이다. '멈추면 보인다. 비우고, 내리고, 숙이고, 낮추고. 비로소 멈추면 볼 수 있다.'라는 작품 설명이 붙어있다.

일반적으로 불교 천태종에서, 지(止)는 모든 번뇌의 끝냄이요, 관(觀)은 자신의 천진심(天真心)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어지럽게 흐트러진 망령된 생각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지혜로 만법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라 한다. 또한 지관을 수행하는 도량을 지관창전(止觀窓前)이라고 한다. 정관도, 직관도, 달관도 아닌 止觀이라... 멈추고 그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비우고 내리고 숙이고 낮추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찾아보았다.



주역의 23번째 괘가 '산지박(山地剝)'이다. 위에는 산(山≡), 아래는 땅(≡地)을 의미한다. 地는 順이여 山은 止의 뜻이고 박(剝)은 '벗기다, 깎다, 허물다' 등의 뜻이 있다. 이어서 '順而止之(순응지지는 觀象也(관상야)니, 君子(군자) 尚消盈虛(상소영허) 天行也(천행야)라. 순응해서 그치는 것은 과상을 보기 때문이다. 군자가 소식영허의 이치를 숭상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법칙)이다.' 라고 전한다. 소식영허 즉, 사라지면 생겨나고 가득 차면 비워진다. 순종하며 머물러 열매가 씨앗이 되도록 하여 군자의 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박려).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오두막을 잃는다.'도 그 뜻을 같이 한다. 종자, 씨과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타개할 양의 기운(-)을 지켜야 한다. 씨과실을 먹지 않는 군자는 상황을 타개하여 어디든 갈 수 있는 수레를 얻고, 씨과실을 먹는 소인은 본인이 거쳐할 오두막마저 잃는다. 故 신영복 선생은 산지박의 맨 위 꼭대기 양효(-)를 왕년이 지나간 나목(裸木, 벌거벗은 나무)의 까치밥으로 표현했다. 먹지 않고 남겨둔 까치밥!

코로나19에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겹이 고달픈 시간을 보내면서도 순종하며 머물러 열매와 씨앗을 지켜내고 자신을 성찰하는 군자의 도가 새삼 사무친다. 지관(止觀)이다.

군산을 주제로 한 '군산 맛, 맛', '어청도', '群山'도 매우 재미있는 작품이다. 글자체는 조선 현종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차남, 정학유(丁學遊 1786~1855)가 저술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 영감을 얻어 조각했다. 작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체라고 한다. 군산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도 지관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멈추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산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의 낙관 역시 어산(魚山)으로 했다. 고기(魚) 字는 물고기 형태로 조각하고 뫼산(山)字를 찍었다. 물고기가 산을 이룰 만큼 매우 풍요로운 고장으로 강과 바다와 산과 들이 어우러진 물산의 고장 군산을 표현했다.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 보니 일제는 전쟁의 수탈기지로 군산을 그 오랜 시간 맘껏(?)수탈해갔던 것이다.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두머리' 작품을 시작으로 약 7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장르와 일관된 애깃거리와 전해준 작가에게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웠던 8월에 전시를 시작해서 선선한 9월에 막을 내리고 전승택 작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내년 서울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과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그리고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등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도 기획중이라 한다.

다시 군산이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공연과 전시,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빙 홍보 강화, 군산의 문화재와 자연유산 활용 강화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관(止觀)의 자세로 제대로 돌아보고 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





## 전업주부 문화빈(본명:문정숙), 시인 등단

문예지 <미네르바> 신인상 수상  
'시낭송 공연' 기획 연출하며 실력 키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내기 시인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시(詩)의 문 앞에서 오래 서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시는 신이 내려주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신과 마주앉아 대화하는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시는 종교와 같아서 그동안 지인들의 시를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이제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풀들이나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생물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 책무가 제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들림, 신내림처럼 시를 미친 듯이 써보고 싶은 욕망이 제게 생긴다면 그것 또한 제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쯤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문화빈 시인은 등단 소감에서 말하고 있듯이 듣지 못하는 풀들이나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생물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싶어 하는 아직은 때묻지 않은 소녀 같은 시인이다.

### <잘가요, 반딧불이>

#### 전업주부에서 시인을 꿈꾸기까지

평범한 전업주부가 시인으로 등단했다. 2020년, 문예지 <미네르바> 가을 호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문화빈(본명:문정숙) 시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써온 시 20여 편을 응모해 그중 세 편의 시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녀의 변신은 도서관과 함께 한데서 비롯된다.

시를 쓰기 전까지는 독서가 취미인 평범한 전업주부였으나 군산시립도서관을 다니며 시낭송 공연과 독서문화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등단까지 하게 됐다고 말한다.

문화빈 시인은 대학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학을 공부하면서 시립도서관 시낭송 공연 기획과 연출을 맡아 몇 차례 시낭송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작품을 써오기 시작했다.

올해 7월 미네르바에 작품을 응모해 그중 <뒤란>, <잘가요, 반딧불>, <빙하> 세 편의 시가 선정돼 가을 호에 게재됐다.

그 밤 별빛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데네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사랑과 적멸의 시간이 왔다.  
지상에 부질없는 답신들이 날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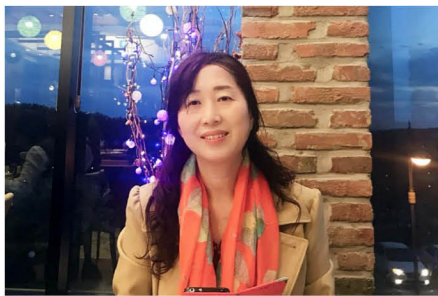
가볍게 날아오른 한 별이 잠깐  
무겁게 날아오른 한 별이 잠깐  
어두워서 찬란했던 그 때  
허공의 팔을 베고 있다는 것도 잊고  
맹목의 정열을 태웠다.

감당할 수 없는 가벼움에 멀미를 앓다가  
고통의 두꺼운 막을 찢으며 추락했지만  
떨어지는 빈 허공에서 기울기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틀거리고 구겨질 때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그 소리에 떠밀려 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그들은 찰나로 만나 적막한 홍수 속으로 사라진다.





### 잊고 있었던 유년의 꿈

시작은 두 아이들의 독서 지도가 목적이었지만, 고교시절 국어담당 선생님께서 “시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권유로 시작된 시에 대한 관심이 그녀를 시인으로 등단하게 한 계기이기도 하다.

“고교시절 선생님께서 시를 써보라고 권했던 것이 당시 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수업 후에는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시집을 찾아 읽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듯해요”

이러한 시에 대한 관심은 문화빈 시인을 대학 진학 역시 국문과에 진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에 대한 꿈은 건강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하면서 멀어지게 됐다. 결혼 후에는 암에 걸린 남편의 병간호와 생활고에 대한 고민으로 유치원을 해야겠다는 결심에 유아교육학과에 재 진학하기도 해 문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차츰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건강을 찾자 다시 그녀를 시 창작세계로 끌어 올린 건 도서관이었다. 흐지부지 작가의 꿈을 접은 것이 못내 아쉬웠던 문화빈 시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 시낭송 공연 기획 연출가

시립도서관에서 풀꽃시낭송회, 독서모임 등을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시 발성법 및 낭독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난 2017년 2월 예술의전당에서 '생의 적막과 소란 속에서'라는 주제로 시낭송 공연을 했고, 지난해에는 동우아트홀에서 '시에 풍경 달다' 라는 주제로 시낭송 공연을 갖는 등 두 차례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낭송회 활동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과 교류를 갖기 시작하면서 시를 본격적으로 써야겠다는 내면에 숨어 있던 그녀의 꿈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군산 옥산에 내려와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시는 문호치 시인을 만나 본격적으로 시를 공부하게 된다. 문호치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장으로, 이때부터 문화빈 시인은 작품 활동에 몰두해 현재까지 20여 편의 작품을 쓰게 된 것이다.

이번 등단 역시 문호치 시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호치 시인의 지도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 문화빈 시인의 꿈을 향한 도전

문화빈 시인은 개인시집 출간을 목표로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싶다고 한다. “인간 내면의 고통을 끄집어내어 이를 언어로 표현해 위안을 받고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의 시를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고 싶다는 문 시인은 문호치 시인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군산시학당'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해온 시낭송 공연 역시 그녀의 몫이다. 알차고 내용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인들과 함께 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한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지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그녀의 일과다. 아이들에게 시를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정서수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문화빈 시인은 이제 갓 등단한 새내기 시인이지만 학창시절부터 키워온 시인에 대한 꿈을 펼치면서 군산 지역 인문학 발전에 작은 기여와 한 차원 높아지도록 물꼬를 뜨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기대에 걸맞게 문화빈 시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문화빈 시인  
010-8414-9980



그때 그사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 당구장 아저씨 된 이만수 전 의장의 변신

4선 시의원에 부의장, 의장 역임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군산시의회 4선(1대~4대) 시의원으로 부의장과 제4대 때는 의장을 역임했고, 민주평화통일군산시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한 때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 지금은 평범한 당구장 아저씨로 변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생 뭐 별것 있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매일 당구대를 닦으며 살고 있다는 이만수(70세) 전 의장을 만나보았다.



## 당구장 아저씨의 바쁜 하루

군산시의회 4선 의원을 역임한 이만수 전 의장이 당구장 아저씨가 됐다. 그의 아내가 서흥남동 서흥중 사거리 번에 자신의 끝 이름을 딴 ‘수(秀) 플라워’를 오픈해 꽃 속의 남자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미원동에 위치한 ‘탑 당구클럽’ 사장으로 변신했다.

당구를 치러 다니기만 했지 당구장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없던 이만수 전 의장이 당구장을 하게 된 사연은 우연찮게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인이 하던 당구장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당구장은 쉽지 않은 곳이다. 바닥청소는 기본이고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당구대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힘들어 대부분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알바생을 채용해 운영하는데 나이 칠순을 바라보는 분이 알바도 두지 않고 직접 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들 텐데 관찮으시냐고 묻자 “당연히 힘들지 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 사업이라 생각하고 매일 당구장에 나온다.”고 답하신다.

이 전 의장의 하루일과는 오후 1시 정도 당구장에 출근을 하자마자 가게 청소와 당구대를 일일이 닦은 다음 각종 음료를 준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 손님이 많이 줄어 일찍 귀가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이 100여 명이 넘는 정도로 손님들이 많아 새벽에야 퇴근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구 실력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한가한 시간대에는 손님과 한게임 할 정도로 실력이라며 살짝 4구 기준 300점이라고 고백하신다. 300점이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것이다. 아

마추어 선수급은 아니지만 중급 수준으로 최소 몇 십 년은 당구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 차별화된 당구장 ‘탑당구클럽’

탑당구클럽은 차별화된 당구장이다. 이 전 의장은 당구장을 기존의 당구장과는 다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당구장인지 헬스클럽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당구장 내 각종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다. 게임 중이거나 잠시 쉴 때에 운동기구를 이용해 건강도 챙기라는 뜻에서 구비했다고 한다.

또 전국 최초로 각 당구대마다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 흡연자들을 배려했다. 음료수는 기본 탄산음료 이외에도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중장년층이 많다보니 몸에 좋다는 ‘야관문’과 대추차를 직접 달여 제공해 고객들이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근엔 자동게임기인 알파Q 시스템(인공지능)을 군산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아직 2대 밖에 설치하지 못했지만 고객들이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한쪽 편에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빼곡히 쌓아 놓아 작은 도서관의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분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신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몰라도 ‘군원 당구회’와 ‘도전계편’ 당구동우회가 매월 이곳 당구장에서 정기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당구장을 기존 당구장의 틀에서 벗어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당구장을 추구하고면서 군산에서 제일가는 당구장으로 키워보고 싶은 게 꿈이라고 전한다.





이만수 비대 전임의장 단식농성 13일째

# 직도목적장 반대 단식농성



## 화려했던 정치인생

이만수 전 의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남대 경영학 박사로 보기 드문 박사출신으로,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in서울' 출신 시의원으로 장래가 촉망된 정치인이었다.

황색돌풍이 몰아치던 90년대 초반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화민주당 군산시지구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채영석 국회의원에 눈에 들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1991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통합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4선을 역임했다.

시의원에 당선이 되자마자 초대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군산시의회 제4대 때는 시의회 의장에 선출되면서 그의 화려한 정치인생이 열리는 듯 했으나 이후 역대 의장 출신들의 '다음 선거 낙산'이라는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야인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군산목재 대표와 군산중고 43회 동창회 초대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09-F지구 부총재, 군산 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평민당 국민회의 중앙위원, 군산발전협의회 의장,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직도 사격장문제'로 인해 지역발전 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만 희생하라는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뿜으며 2주일 동안이나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이 전 의장이었다.

당시 이러한 노력으로 3,000억 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아 고군산 연결 도로를 건설하게 된 시초가 됐다. 시의원 신분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얻어낸 성과였는지라 군산을 위해 가장 보람을 가졌던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좋은 후배들이 있다면 언제든 돕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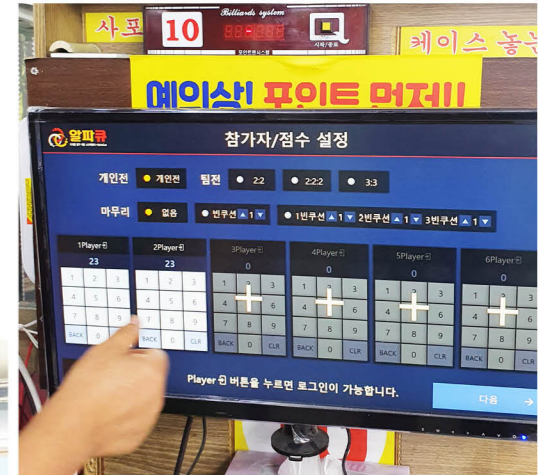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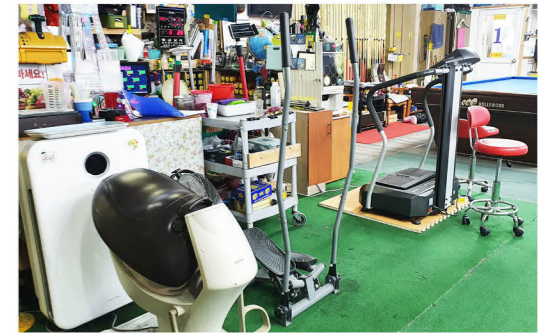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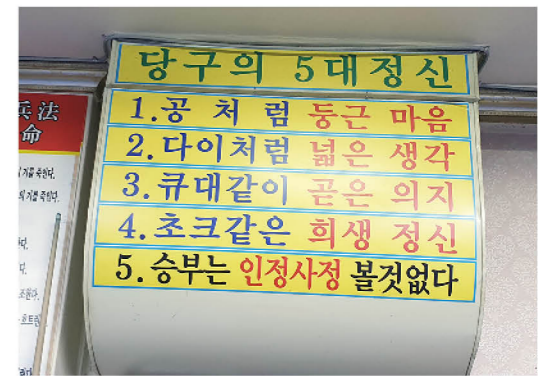
최근에는 보궐선거에 명암을 내보기도 했지만 이제 후배들과 경쟁하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나기도 했다. 이제 정치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할 나이다.

정치를 계속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은 하지 않지만 "평범한 당구장 아저씨로 사는게 더 재미있고, 좋은 후배들이 나오면 돕고 싶다"고 말한다. 좋은 후배가 있다면 그를 도와 군산의 정치, 자신이 펼치지 못한 꿈을 대리하고 싶다고 말한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화려했던 이 전 의장의 정치인생도 흐르는 세월을 막지 못한다. 어느새 칠순이 가까운 나이가 되다보니 이제는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이 편하다.

특유의 화법으로 인해 못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까지 소유한 이 전의장이 이제 평범한 소시민적 삶 속에서 여유로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갖고 군산에서 최고의 당구장으로 키워 나가는 게 꿈이라는 이 전 의장.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만큼 당구장 역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탐당구클럽 대표 이만수 전북 군산시 미원로 121 063)442-4200



**처음처럼**

**탐당구장 왜 TOP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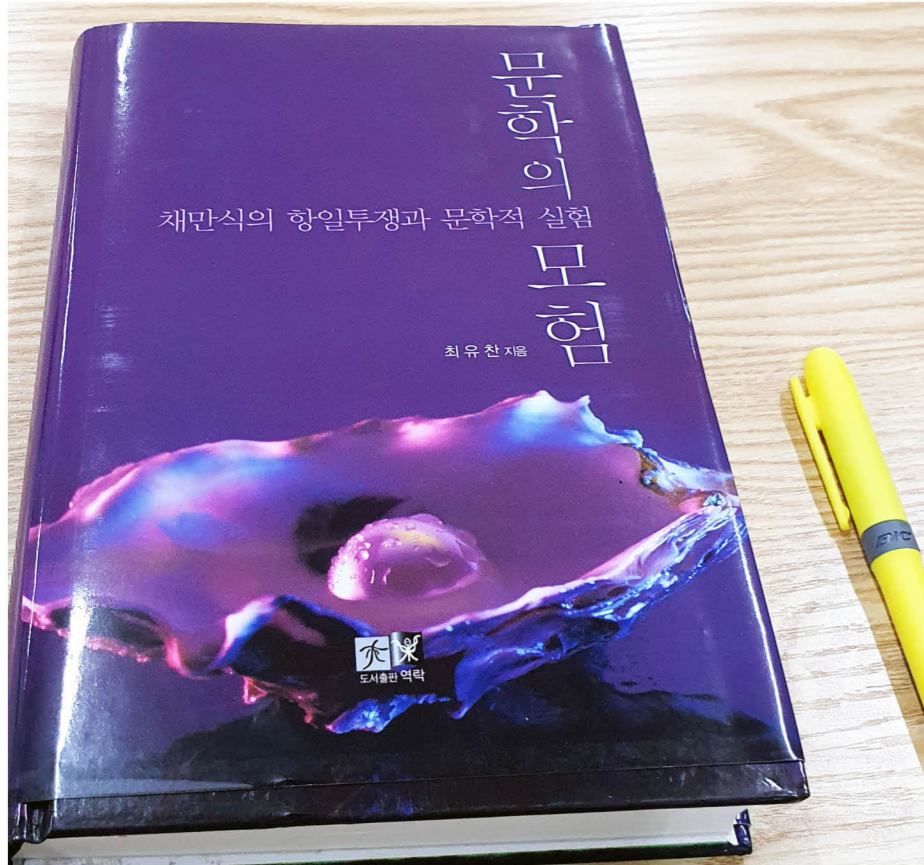
- **전국최초** ● **개별 출연실 설치**
- **전국최초** ● **개별 안마기 설치**
- **아권문/대추자/음료수 무한 셀프리빙**
- **요금인하 단행**
- **국제식대(10분) 1,400원 > 1,200원**
- **중대(10분) 1,200원 > 1,000원**
- **가족, 연인, 65세 이상 10% 추가할인**
- **군산사랑상품권 환영**
- **영업시간 연장** 오후3시~늦은밤까지

한게임 기본요금 4,000원



# 채만식은 최고의抗日作家였다.

글 | 한상희(소설가)  
carpenter052@naver.com



문학의 모험, 2008년 8월, 저자: 최유찬

군산이 낳은 천재작가 '채만식'은 1930년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대표적인 풍자작가(諷刺作家)이자 리얼리스트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친일문학 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대표적인 친일문인으로 비난받음으로써 문학사에서 인멸 위기를 맞아 왔던 것이다. 이후 문학계 및 교육계 내부에서 채만식의 작품을 한국문학의 정전(正典)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어 왔다. 대표적 한국문학 분석학자인 '최유찬' 연대교수는 이 같은 평가 작업이 중대 오류라며, 채만식 작품 폄훼작업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유찬' 연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문학의 모험, 도서출판 역락, 2008년 8월> 을 통해 '채만식의 친일행위를 무조건 비판하기만 하는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면서, 그의 친일 오명(汚名)은 문학계·사회단체 등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구태의연한 왜곡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일제 식민통치 당시의 항일작가(抗日作家) 채만식과 그의 저항문학을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유찬 교수는 '채만식이 문학수단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일제 검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알레고리를 자신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 면서, 그 결과 탁류(濁流)는 당대의 조선인 독자들에게 항일(抗日)과 극일(克日)의 뜻을 생생한 형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해서 '일제에 수탈당하고 핍박을 받는 조선 민족이 흉악한 왜놈을 무참하게 짓밟아 죽이는 이야기를 써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탁류(濁流)는 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일제 검열관들은 그 낚시를 뒤늦게 서야 알아채고 서둘러 3쇄 발매중지 처분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 등에 빠져있는 우리의 문학 연구자들은 작품이 나온 지 반세기가 지나서까지 채만식을 친일작가(親日作家)로 몰아세우면서, 디테일이나 통속성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는 중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최'교수는 그 외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해봤을 때, '채만식의 작품은 식민지 당시 최고(最高)의 저항문학(抵抗文學)이었다' 면서 이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보편타당한 연구도 없이, 우리의 문학사에서 마녀사냥 방식으로 친일문학 행위자에 대한 기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입은 대표적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채만식 작가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돼 군산시가 주관해온 채만식문학상은 지난해부터 시상이 중단되었고, 채만식 문학관도 폐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 문학계 및 교육계 내부에선 채만식의 작품을 한국문학 정전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시도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과연 17세기 영국 시인 '존단(Jhon Donne)'이 암시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 조종(吊鐘)을 울리기 위한 음모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합리적으로 학문을 연구해온 학자들이나 사회단체들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유찬' 교수는 이런 문학계·사회단체 등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채만식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라면서, 그 핵심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했다.

▲ 첫째: 채만식의 문학은 일제말기 치열한 투쟁의식을 표현하는 抗日文學이자 새로운 문학형식을 탐구한 문학적 실험이었음.

▲ 둘째: 채만식은 일제말기 주로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항일의식을 표현했으나, 풍자기법(諷刺技法)에만 관심을 기울인 천편일률적인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그 의의가 전적으로 묵살되었고, 그에 따라 문학사적 의미가 왜곡되어 버렸음.

▲ 셋째: 연구자들이 채만식의 작품 속 알레고리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데는 기초자료들에 대한 천착(穿鑿)이 부족했음은 물론,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음.

이 세 가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 1. 채만식의 항일투쟁(抗日鬪爭)과 문학적 실험

▲ 채만식은 1934년 중반부터 193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침묵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고했고, 거기서 문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한 후, 그 방법으로 알레고리 기법을 선택했다.

▲ 최초의 알레고리 작품인 <탁류(濁流)>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수탈을 형상화하는 한편, 일제에 대한 조선 민족의 항거를 표현했다. 1938년 5월까지 연재된 이 작품은 이전의 <조광(朝光)>, <산둥이>와 같은 단편소설(短篇小說)에서 실험했던 작품구조를 통합해 이루어졌고, 1936년~1938년까지 지속적으로 실험한 알레고리 기법을 장편소설(長篇小說)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채만식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음.

▲ 1936년~1940년까지 채만식은 수많은 알레고리 작품을 창작했다. 초기의 작품은 주로 지조(志操)와 변절(變節)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친일(親日)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나타내 준 것임. 특히 1936년에 쓴 <소복 입은 영혼>에서 작가는 변통성 없이 명분만 내세워 생명을 외면한 선비를 비판하고 있는데, 일제 말기 작가가 지녔던 삶의 원칙이 드러난 대표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음.

▲ 1940년 전후의 작품들은 알레고리를 통해 당대 사회의 총체상과 현실상황에 대한 주체의 대응을 표현하기도 했음. 그 대표작은 <심봉사>, <제향날>, <태평천하>, <패배자의 무덤>, <냉동어> 등인데, 다루어지는 문제에 따라 작가는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였음. 예컨대 <제향날>에서는 병치의 기법을 사용하고, <태평천하>에서는 역설의 기법을 이용했음.

▲ 채만식은 알레고리 기법조차 사용하기 힘들어진 1940년대 초반엔 자전적 기법을 사용하여 식민지 현실을 표현하였음. 이 시기 작가는 겉으로 親日을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여 항일의식(抗日意識)을 표현했음.

▲ 일제의 패망을 일찍이 예견한 채만식은 1943년 장편 <어머니>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조선민족의 수난사를 형상화하려 했고, 그것이 검열로 인해 중단되자 <여인천가>를 통해 그것을 완성했음. <여인천가>는 친일문자의 외피를 뒤집어쓴 조선민족수난사로서 진주조개의 표상을 지니고 있음. 더러운 껍데기와 영롱한 빛을 뽐는 진주가 표현된 그 형상은 채만식의 일제 말기 항일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탁류(濁流)>와 함께 작가의 대표적인 알레고리 작품임. 이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교묘하게 피해온 그에게 천재작가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임.

▲ 해방 후, 채만식은 시대현실을 풍자하는 자전적 소설 등을 지었음. 그 가운데 <역로(逆路)>는 개인의 체험을 통해 현실의 구조를 포착하고 있고, <민족의 죄인(民族的 罪人)>은 일제말기 친일행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형상화하여 객관적 검토의 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낙조(落照)>는 자전적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면서도 남북분단이 기정사실로 변해 가는 현실의 총체적 구조를 보여줌과 동시에,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작가의 우려를 담고 있음.

▲ <소년(少年)은 자란다.>는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자 해방 후 쓰여진 대표적인 알레고리 작품임. 채만식은 이 소설에서 한국근대사의 전개를 압축해 보여줌으로써 조선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의 객관적 구조를 드러

냈음. 이 작품에서 작가는 야수들의 각축장이 된 현실을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자주독립 국가를 이루어가야 할 민족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2. 채만식 문학 왜곡 과정

▲ 임종국의 <친일문학론(親日文學論)>은 작가의 문학행위 성격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몇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채만식을 親日作家로 기록한 것임.

▲ 김윤식은 <민족의 죄인(民族的 罪人)>이 작가의 친일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자기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채만식 문학에 대한 이후의 해석에 결정적인 규정력을 발휘하게 된 것임. 게다가 <민족의 죄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중심에 놓고 채만식의 모든 문학행위를 검토함으로써, 김윤식은 채만식 작가의 문학이 지닌 의의를 전면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임.

▲ 또한, 김윤식은 채만식 문학의 본령이 풍자에 있다고 못 박고, 거기에서 벗어난 작품의 의미를 묵살했음. <민족의 죄인>을 작가의 자기반성,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자 자기변명이라고 해석한 것도 이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임. 이 관점은 <탁류(濁流)>를 세태소설이라고 본 임화, 김남천의 해석과 함께 채만식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음.

▲ 최근 들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김윤식의 관점을 이어 받아, 채만식의 문학을 풍자문학으로 일괄하면서 친일문학행위의 양태를 고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음. 그에 따라 채만식의 문학은 일제말기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작품들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임. 채만식 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의 견해는 이 주류담론에서 배척되고 있다. 즉 사고현장에서 목소리 큰 ㅈ가 이기는 논리로 변해버렸음. 달리 말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임.

▲ 채만식 친일론(親日論)은 문학을 친일문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연구자가 친일 문학 청산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태가 확산돼 왔음. 이는 실로 진정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채만식문학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작가의 기념관 폐쇄, 정전에서의 배제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도 이 주도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문학세계에 대한 이들의 무식(無識)과 사시(斜視)현상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같음.

## 3. 텍스트(Text) 해석의 결정적 오류

▲ 채만식 문학에 있어, 근본적인 왜곡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들이 작품의 알레고리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음. 알레고리 기법을 이용한 항일정신을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읽어내지 못할 경우 작가의 작품에 대한 중대 오류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음.

▲ 채만식 문학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임. 작품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작가의 발원,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채만식 문학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지

금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임. 그 결과 작품을 대강대강 보고, 주류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까닭에 많은 연구자들은 알게 모르게 작가의 문학에 대한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 일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임.

▲ 작품 독서 방법에도 문제가 있음. 기왕의 문학연구는 작품의 부분이나 표면만을 보고 분석하는 서양의 문학연구방법론에 매몰되어 있어 작품을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품의 상(象) 포착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이 방법은 작품의 패턴을 보는 방법이나 원형을 파악하는 방법과도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물에서 형태를 버리고 순수 동작을 읽어내는 <주역>의 취상법(取象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문학작품의 이해에도 원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그리고, 돌베게 출판사의 친일파 관련 서적들에서도 채만식 문학을 '이효석'과 비교하면서 친일 작가(親日作家)가 아니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 후반기에 다른 친일파 문학가처럼 강연과 친일적 소설 및 시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분명 맞지만, 이렇다 할 튀는 행동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채만식은 그가 카프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희곡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년> 등에서 엿보이는 초기의 작품 경향은 카프의 경향과 문학과 심정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동반자적 작가로도 분류돼왔다. 카프는 일제가 특히 1930년대 중반이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회주의 문학 활동이다.

한편, '김홍열' 열사는 전라북도 옥구사람으로 천도교인이다. 옥구군 내의 만세운동은 장날인 1919년 4월 4일 일어났다. 군산지역에서는 그 보다 앞선 3월 5일 발생했었다. 김홍열은 고향후배인 채만식을 포함한 김석중, 최진동, 황봉규, 진장권 등과 함께 옥구군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그리하여 그 해 6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이 때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1년~7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후, 김홍열은 청년동지들이 주축인 만든 '삼성구락부'를 조직,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했다. 정부에서는 故인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한편, 진장권은 1924년 9월 23일 상하이로 망명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인성학교(仁成學校) 교사로 초빙되어 교민자녀의 교육과 독립운동에 진력했다. 그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결론은 7개월간 옥살이까지 한 채만식 작가에게 훈장을 추서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간 親日로 낙인찍혀온 것은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의 미발표 대하소설 '여수는 알고 있다'에서 발췌) 나중에 분명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채만식 작가는 군산이 낳은 작가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배출한 국보급 천재작가다. 대한민국에서 천재작가이자 국보급 작가 칭호가 따라다니는 문학인으로는 채만식 밖에 없다. 이런 작가를 올바른 역사의식이 다소, 또는 많이 결여된 일부 학자들과 사회단체의 정확치도 않은 주장들에 침묵해온 군산시 당국이나 군산문인협회 등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온 군산시민들도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군산시와 전라북도 내 일부 인사가 채만식 문학관 폐쇄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혈족간의 사사로운 원한이 서려있어서 일까? 아니면 고질적인 무슨 이해다툼일까? 여하튼 관련 인사들은 떳떳하게 공개 석상에 나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전라북도, 나아가 진정한 한국문학발전을 저



해하는 중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간 양식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진 학자들의 엄밀한 채만식 작품 분석과정과 내 작가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채만식 친일론(親日論)은 깊이 연구도 해보지 않은 무식함의 극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음모(陰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저 사실이 아닐길 바랄뿐이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공개토론편도 불사할 각오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시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미 내려진 문학관 폐쇄관련 공문이 그 첫 번째 증거다. '시간이 진실을 말해준다. (Time reveals the Truth)' 라는 서양 격언처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다. 그 때가서 일부 학자나 사회단체는 그 후손(後孫)들 앞에 어떻게 민낯을 드러낼 것인가? 더 늦기 전에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역사는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무엇보다도 역사를 무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채만식 문학관 책임자와 군산 문협에도 간절히 당부하고 싶다. 문학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설명되어 있는 채만식 친일전력 내용부터 대폭 시정했으면 한다.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인용해 게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분명 고려할 가치도 없는 오류다. 채만식 문학관 내에 학술적인 전문인이 안 보이는 것도 대단한 불행이다. 그런 안이한 태도로 어떻게 주도면밀한 채만식 왜곡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것인가? 할 말은 많으나 이만 마치고.

(다음호에는 동양화가 박래현 탐구 글 게재 예정)



소설가 한상희  
담양 출생  
성대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원 미술사학과 중퇴  
장편소설 등 20권 저술

대한민국 최초 청년의 날  
(9월 19일) 기념

#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 이후 1년 운영성과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군산에도 청년을 위한 기관이 탄생하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센터 신설'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군산과 통영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 취·창업 특강, 창업지원 등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군산시의 주력산업인 현대중공업 조선산업과 GM대우 자동차 철수로 인하여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하여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11월 15일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하고 오늘날까지 운영중이다.



군산시 청년뜰 2019년 사업설명회



## 군산 최초 청년·창업 중간지원조직 '청년뜰'

군산시 청년뜰은 비영리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2개의 센터가 존재한다. 군산시 청년센터와 군산시 창업센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합센터로 조성되었다. 군산시 상공회소 건물(내항 1길 4번지) 3F(교육 공간), 4F(소통공간), 5F(메이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3층 청년강당과 세미나실, IT교육실. 4층은 메인공간으로 청년도서관 1,500여권, 공유카페, 공유주방으로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청년뜰에는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군산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창업꿈나무 사업단이 함께 있으면서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 지원하고 있다.

5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3D프린터, UV평판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메이커 공간 및 수제작작공작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실에 영상 촬영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과 장비들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뜰 교육, 소통, 메이커 공간> 3층, 4층, 5층

##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20건 운영실적)

###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청년 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책임지는 #청년스타그램

#청년스타그램은 2019년 FUN(역량강화), LIVING LAB(지역혁신), START UP(창업) 3가지 분야의 21팀의 동아리 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인근 대학교 카페에서 버스킹 공연 개최, 아나바다와 같은 기부금 창출을 위한 착한 플리마켓(장터) 운영,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대상 콘서트 등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여 청년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며 청년들의 비공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올해는 지역·사회 혁신 및 발전을 목적에 둔 동아리를 모집하여 현재 20팀의 동아리가 선 발되었으며 매달 네트워킹데이 운영을 통해 동아리 간 콜라보 등의 상호작용 활동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전라북도 기업취업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수업



NCS직업기초능력평가대비특강

○ 전라북도 기업취업특강(지역기업 & 지역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2020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청년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전라북도 내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통창구 부족으로 인해 잘 홍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 내 선도기업, 강소기업 CEO 또는 인사담당자가 청년 대상 취업특강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할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한 취업 이미지 메이킹 및 이력서 1:1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컨설팅관 운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맞춤형 취업대비 집중 멘토링은 '잡 튜터링 클래스'

잡 튜터링 클래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심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면접뽀개기반, 일반 기업체 희망 취준생을 위한 취업뽀개기반, 직무 탐색과 기업분석 및 이미지 메이킹 훈련을 다루는 직무탐색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기업 전략반이다.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으로 진행한 잡 튜터링 클래스의 목표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160%의 참여율을 달성하였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 특강

작년 엄청난 성과를 낸 잡 튜터링 클래스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인기가 많아 이번년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모집공고 게시 후 반나절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프로그램이다. 입사에 필수적인 NCS에 대응하여 필기시험 합격을 도모하고, 취업준비생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업 스터디 취-얼스'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사후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 청년들의 지친 마음 위로해주는 '청년밀담' 프로그램

반복되는 취-창업 준비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 상태를 MBTI검사, 심리관리, 미술치료 과정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울증까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을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해소시켜 주었다. 현재 입소문을 타 주마다 3~4명씩 개인상담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또한 구직애로를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1대1 자소서 및 이력서 컨설팅 기회까지 제공하여 취업 성공한 사례가 있다.

○ 신직업군에 발맞춰 도전해보자 '청년도전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신(新)직업군에 발맞춰 콘텐츠 분야의 교육·지원서비스를 군산에서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공모전



NCS직업기초능력평가대비특강



심리상담·미술치유 청년밀담

에 제출했다. 또한 UV평판프린터 기계를 사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그립톡, 에어팟케이스, 텀블러등 다양한 샘플링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

○ 미래사회를 이끄는 핵심 'SW(코딩)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다양한 컴퓨터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직접 로봇을 다뤄 움직임을 제어하고 블록 코딩 및 스크래치 실습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금방 익숙해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였다. 실습 진행 후 인성코딩 지도사 3급에 도전해 14명이 합격했다.

○ 군산시 청년들의 홍보대사 청년 서포터즈 홍보단

군산시 청년들엔 든든한 청년들이 함께있다. 청년들의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소개,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기사 작성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만의 색다른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달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켰다.

○ 너도나도 역량강화(공유식탁)

다양한 일일 클래스와 장기 클래스를 통해 SNS로만 소통하는 시대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유주방이라는 오프라인 소통장소를 개방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너도나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가 되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들, 군산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다 (83개 창업팀 육성)

개소이후 1년 동안 군산 청년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희망기움사업 연계해서 군산시 청년 창업가 83팀을 발굴하였다. 지금까지 창업교육, 사업 고도화 지원, 전문가 창업멘토링, 비즈니스모델 검증, 시제품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자체에 우수한 성과 창출하였다. 특히 군산시 도시재생

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워져있는 공간을 찾아가 구도심에 창업 거점을 마련한 청년 창업가들이 40% 이상이다. 적재적소에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 창업가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 (398건 상담, 창업교육 1,000명 수료)

개소 이후 창업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약 400건 창업상담, 1:1 멘토링, 창업교육 약 1,000여명 이수하면서 지역 사회 올바른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주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군산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ne-Stop 창업컨설팅이 운영,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지원, 홍보 및 마케팅 영상제작, 메이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Make-up 창업교육, 수제창작 제작기술과 관광상품 수제창작 창업교육, 수요창업특강 그 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창업의 보루,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특허 등 60건)

지식재산권의 경우 창업자에게 소중한 자산이며, 창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보루이다. 이에 군산시 청년들에서는 창업가들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진행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30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 글로벌 창업 지원(2회)

해외 e-커머스 창업교육(글로벌 마켓을 활용한 셀링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총 8명 이상이 실질적인 해외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5명 이상이 추가로 창업을 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후기로는 해외 판매 플랫폼 교육이 생각보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 군산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회)

청년들에게 개최하는 '군산시 관광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90여개'의 다양한 지역 관광산업 관련된 아이디어 출품,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창업가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이 중 18개의 우수아이디어가 선정, 이번 연도에는 최우수 아이디어 3개를 최  
중선정하였다. 수상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여, 우수 아이템 발굴하  
여 창업으로 이어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이바지하고 있다.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군산시 청년뜰(MOU 28건)

군산시 청년뜰은 지역 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지원사업부에서는 청년취업지원기관인 대학 및 일자리센터와 연  
계하여 관내 졸업생들의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부에서는 군산시 청년 창업가 마케팅 지원, 파워블로그 체험단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의 판로를 넓였으며, 전라북도 소셜 벤처 발굴 육성, 전  
북 임팩트 데모데이를 개최, IR 투자유치대회, 창업 멘토링까지 전북 내 창업  
가들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를 운영하였다.

### 청년 보금자리가 되어가는 청년뜰 (4,500명 방문)

○ 군산시 청년뜰은 청년들에게 편한하고 자유로운 공간  
군산시 청년뜰은 지난해부터 오는 8월까지 누적 4,500명이 방문하였다. 이  
는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운영으로 판단기준 정량  
지표 '연간방문객수 1,300명이상'의 3.5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으로 군산시 청  
년뜰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지  
표이다. 또한, 누적방문자의 80%가 군산 청년으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떠  
오르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청년들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군산시 청년뜰 1주년을 축하하며!

○ 청년서포터즈 1기 활동 후기-우수 서포터즈 김홍수 님  
군산시 청년뜰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  
의문을 품었는데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역량개발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을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홍보하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 청년 창업가 - 군산특수 김영훈 대표  
군산 청년뜰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군산 지역의 청년들, 창업예비자들  
의 가치와 역량을 존중하고, 청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  
에서 출범한 청년뜰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군산 청년뜰이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청년창업캠퍼스', '윈스  
톱 창업컨설팅', '지재권 출원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군산 청년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청년뜰의 중요성,  
지원성에 대한 좋은 인식을 확산시켜 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 청년  
창업가의 입장에서 군산특수에서도 청년뜰의 '지재권 출원지원사업'의 도움



Make-up 창업교육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년뜰



대관 후 교육 진행 사진

을 받아 당사에서 연구개발한 "굴삭기 전용 청소 빗자루" 제품  
의 특허 출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또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받아 당사에서 제작한 상  
품에 대한 홍보 영상제작을 지원 받았고, 이후 SNS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뜰에서 많은 도움, 지  
원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산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  
니다.

### ○ 제2회 그린뉴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 대상 강혜민 님

군산시 청년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청년의 나이가  
마지막인데 군산시 청년뜰에서 주최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  
회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기존에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만족  
하고 있습니다. 청년뜰에서 주관하시고 기획하시는 모든 교육  
일정과 모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게 코로나가 빨  
리 종식되면 좋겠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청년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  
지와 좋은 에너지를 전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 특강 수업 후기 - 박지원 님  
군산시 청년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규모  
로 진행한 NCS 특강을 들으며 집중도 높았고, NCS 문제풀이  
출제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  
보게 되었어요. 청년뜰에서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  
고 한마디로 퀄리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틈틈이 자소서 첨  
삭까지! 특강 저는 완전 대만족! 면접강의도 추가로 듣고 싶어  
요. 그리고 청년뜰 건물에 처음 와봤는데 강의실이 너무 쾌적  
하고, 카페는 너무 예뻐서(오션뷰!) 자주 오고 싶어요. 취월스  
취업스터디 담당 매니저분 항상 신속하게 질의응답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대단해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

○ 군산 청년협업체 위원장 채춘욱  
군산청년협업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춘욱입니다. 군산은 조  
선 및 자동차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군산 청년들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는 군산시 청년뜰의 탄생이 1년이 되었  
습니다. 단순히 축하의 의미가 아닌, 군산 청년들이 탄 배의 선  
장 역할을 해주는 청년뜰의 다양한 노력들이 1년동안 끊임없  
이 실행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태욱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군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  
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뜻깊고,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분야  
에서 지금처럼 묵묵히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산청년협  
업체 역시 청년들과 함께 군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산 청년포럼 이사장 김중헌  
제1회 청년의 날과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개소 1  
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군산시 청년뜰 덕분에 군산 청  
년들이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8  
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이어 오는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을 맞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  
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지난해 설립한 군산  
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과 저희 군산청년포럼은 청년들  
이 겪고 있는 공통문제에 공감하고,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  
며, 다양한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군산 청년, 군산 청  
년뜰 화이팅입니다.

### COVID-19 이후 발빠른 대응 비대면 시스템으로 청년 지원사업 지속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 두기 2단 격상으로  
공공기관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일정기간 센터 휴관을 하였지  
만, 청년뜰 프로그램은 발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  
환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쳤다. 다양  
한 채널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돕고 있  
다. 소문이 나서 타 지역 청년들이 청년뜰 비대면 수업에 참여  
할 정도이다. 현재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진행하면서 수강인원  
을 2배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은 시대의  
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비대면 운영사진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장 고통 받는 이들...

코로나19로 우리는 전에 없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환자와 전염병에 취약한 많은 이들에겐 죽음이라는 공포를 특히 여성들과 청년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공포를 남겼다. 전염병에 대한 감염도 두려워지만 현실적인 생계문제와 사상초유의 무기한 휴교, 휴업,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공포가 더욱 크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상생활이 강제로 제한되거나 고객이 끊어지고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며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이 없으니 매출이 줄고 그로 인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근로자들 중에도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다.

군산YWCA와 관련된 종사자들만 해도 요양보호사(간병사), 가사돌보미 등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고 학교가 휴교 하다 보니 외부인들과 접촉을 꺼리게 되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격탄을 맞고 있

다.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나마 일자리마저 없어지니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사의 경우도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아니다보니 가장 가까이 환자 케어를 하면서도 방호복이나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하다.

이미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돌봄 노동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정책안에서 일의 특성상 소득증빙 등 공식적인 자료를 징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서비스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인력들, 일선 공무원, 의료시설, 검역소 등

을 유지 관리하는 방역, 청소인력, 지원인력 등 모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이 시기에 마트도 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의 노고 덕분이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나의 무난한 일상이 이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덕분임을 감사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 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고통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김선화

군산YWCA 사무총장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위원  
전) 군산여성인력 개발센터 관장  
ywcags@daum.net

## 지속가능한 발전의 육아지원 환경을 위한 함께 하는 보육생태계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어느덧 너도나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현실 육아'와 '독박육아' 속에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한 육아를 갈망하고 그 해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당한 진전 이면에 극심한 경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 대기오염 등의 환경파괴, 아동의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우리 삶의 양식과 가치를 되짚어 보고 국가적 공공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대목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화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에서 '아동의 안녕(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곳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다. 또한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도 <우리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미래세계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복지정책은 영유아의 건강

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기회 증진의 의미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보육정책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특히, 인적 투자 대비 그 효과성이 가장 큰 생애 주기가 아동기라고 할 때,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UN 아동권리위원회(2006)에서는 아동기 중에서도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를 권리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의 권리실현을 위해 관련된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은 충분히 주의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OECD의 교육위원회에서도 <Starting Strong II (2008)>을 통해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조기 투자에 집중하고 영유아 발달을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아동의 복지 및 존중에 있어 국가적 책무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필요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로서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tarting Strong IV (2015)>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불균형과 차이에 대한 보장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설계 및 지표가 마련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부모에게의 정보 제공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재차 강조되었다.

영유아의 권리와 복지,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의 수혜자(영유아)와 이해관계자(부모 및 전문가)의 참여 및 활성화 증대와 더불어 민-관의 각 부처(부서)별 협력과 공조를 넘어 유기체적 생태계 거버넌스의 체계가 그 답이다. 이는 영유아 복지 행정의 분절된 특성을 통합적 요소로 연계한 유기체적·생태계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민-관-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보육생태계로 영유아의 건강한 삶,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복지가 증진된다. 즉, 영유아 복지를 위한 정책은 영유아를 성인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탈피하여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영유아의 건강한 삶과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복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책무이자 우리 성인들의 소명인 것이다.



서영미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북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장  
sym@howon.ac.kr

## 신노예 양산하는 답정너 교육

어느 학교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불렀다.

“반장, 너 가서 야자시간 떠드는 애들 이름 좀 적어 와라.”

그러자 반장이 얼굴을 붉히며 바로 대꾸한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장을 선생님이 뽑아 준 것도 아니고, 저를 반장으로 선출해 준 것은 우리 반의 학생들입니다. 반장은 반의 학생들이 공부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성을 가진 위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 간섭도 아니고, 저를 뽑아 준 친구들이 좋거나 하면 뒤에 앉아서 몰래 이름 적어서 가져오라고 하다니요? 부당한 명령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장이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 이와 다르게 선생님 말씀 받아서 야자 시간에 이야기 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좋거나, 교사를 비판하는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적어가는 반장도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 이런 행위를 하는 학생을 ‘반장질’ 한다고 표현한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반장의 역할. ‘반장질’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사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 앞에서 잘 못된 명령이라고 저항하는 학생에게 또 어떻게 대응할까?

답은 나와 있다. 이런 일을 시키는 교사 수준에 전자의 학생처럼 저항하는 학생은 꾸중을 들을 거다. 후자에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학생은 칭찬 받았겠지. 확대 해석해 보자. 반장에 대한 조금은 과격한 해석이니 이해하시라. 반장질 잘하는 학생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장관, 국회의원, 총리, 검사, 판사 등 우리 사회 권력을 갖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주는 누군가만 들여다 볼 개연성이 높다. 생각 없이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우리 공교육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학교 내 교육자치나 민주주의, 리더십, 시민성 등이 구현되는지 의문이다. 반장질 잘하는 신노예를 만들어 내는 학벌교육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장질’ 잘 하게 하는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유능함을 개발하며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재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철저히 극소수 지배자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인격의 도야·민주시민·인류공영의 발전, 홍익인간의 가치 등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교육이 아니다. 공교육의 이념이라고 하는 가치는 무한경쟁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고 철저히 자기 밖에 모르게 한다.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 어떤 힘을 가진 이들이 묻는 말에만 답을 잘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다. 반장질 잘 하는 과정을 훈련받으면서 힘을 가진 이에게 종속되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문제풀이식 시험을 통한 과정도 교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인 무엇인지 아는가? 교사의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곡히 기록해서 외우기 바쁘다. 비판적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속어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답정너’를 양산하는 ‘노예’ 교육과도 같다. 주인으로서 주체로서의 학생의 참여는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이다. 노예그룹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그대로 전이된다. 노예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그 대가로

먹을 것과 잘 곳 등을 제공 받는 게 노예의 정의다. 과거에만 노예가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도 존재한다. ‘신노예’들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지, 하기 싫지만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지원 받는 일인지 살필 일이다. 신노예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기제는 스펙이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신어 자료집에 등록되기까지 했는데 원뜻과는 다르게 사람이 가진 ‘사양’이라는 뜻이 일반화 되어 있다. 사양? 원래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냉장고가 어떤 사양인지 고려할 뿐이다.

신노예를 양산하는 교육과 학벌교육, 스펙에 집중하는 한 경쟁에 저항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어렵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른 채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은 요원한 과제가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 사회라는 공간에서 긍정적인 삶의 과정이 무엇인지, 직업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 등 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삶은 과정이고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기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장질 잘하면서 ‘따르는 게’ 아닌 성찰하면서 선택 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참여’를 해야 옳다.



정건희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dabogh@daum.net

## 그 섬의 기묘한 죽음 의례

나이 들다 보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함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래저래 미루다가 못했던 일들은 잘 잊혀지 않는다. 그때 일을 반추하노라면 잡사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것 같아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나는 1978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캠퍼스에 와보니 차분히 공부할 분위기가 영 아니었다. 어수선한 시국은 청년들을 거리로 불렀고, 나도 그런 시류에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민속학연구반’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동아리에 열혈 회원으로 종사했는데, 하는 일은 탈춤 추고, 판소리나 민요를 부르다가 밤이면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것이 다였다. 당시 대학가에 유행했던 키워드가 민중이었는데, 이 동아리는 특히 그 문제를 열심히 파고 있었다. 봉산탈춤에, 흥보가에, 그 무슨 운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1979년에 10.26 대통령 암살사건이 터졌고, 12.12 군사 쿠데타가 그 뒤를 이었다. 술 권하는 사회였고, 흑암의 권세가 판치는 시절이었다.

아무튼 나이 스물 청년은 그 동아리를 계기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에 눈을 뜨게 되었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공부했다. 민속학은 민중의 삶을 뒤지는 현장 학문인데, 학교생활에, 빠듯한 용돈에 현장 답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그래도 전국을 부지런히 누볐다.

그때 학업과 주머니 사정으로 끝내 못한 곳이 세 군데 있었다. 그 세 곳은 제주도, 진도, 그리고 군산 선유도였다. 제주도는 본풀이라고 하는 서사무가(敍事巫歌) 때문에, 진도는 씻김굿 때문에, 선유

도는 초분(草墳) 때문이었다.

초분은 시신을 땅에 바로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놓고 살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이영과 용마름 등으로 덮어두는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한다. 2~3년 후에 이것을 해체하여 남은 뼈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 정식 매장한다. 고군산군도를 위시한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고군산군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풍습은 비단 한반도 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있는데 풍장(風葬)이라고도 한다.

죽음은 단절이며, 망자는 정겨운 이들을 남겨두고 절망의 골짜기로 내려간다. 누가 그랬나? 죽음은 우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사라짐은 슬픔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에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마른 뼈는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이요, 풀죽은 민중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위풍당당한 군인으로 재생시켰다. 희망을 준 것이다.

통과의례 중에서 장례가 가장 거창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속박에서의 해방이라서 그렇다. 해원이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자리라서 그렇다.

시인 황동규는 황순원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결코 아버지 못지않다. 황동규는 1982년 그의 대표작 ‘풍장(風葬)’을 지었다.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 섭섭하지 않게 /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70편 연작 장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죽거든 군산 가서 통통배 타고 선유도 어디쯤 무인도에

서 풍장하여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달라고 노래한다. 풍장은 모진 세월과의 이별이나 자연으로의 귀향이요, 영원으로의 회귀이다.

풍장이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좀 무거운 시라면 그의 출세작 ‘즐거운 편지’는 좀 가볍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편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허진호 감독은 원래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거운 편지>를 제목으로 쓰려고 했으나,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영화 <편지>가 그 전해에 히트하는 바람에 그 제목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런 사연이 초원사진관 어디쯤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고군산군도의 초분은 사라졌다. 기묘한 죽음 의례는 전설로, 또 어느 섬집의 앨범 속에 빛바랜 사진으로나 남았지만, 황동규는 그 어느 상주나 문상객 못지않은 진실함으로 죽음을 성찰했고, 시에 그 섬의 초분을 오롯이 남겼다.

고군산군도에 이것저것 좋은 것 다 들어선다고 하는데, 풍장 시비 하나쯤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몇 자 적어보았다.



최연성  
군산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군산발전포럼 의장  
yschoi@kunsan.ac.kr



# 다시 길을 낸 하늘 길,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운항 중단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일 3편(이스타항공 2편-대한항공 1편)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하였으며,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1일 3회에서 4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회복되면 군산공항 항공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공항 연간 이용객이 지난 2018년 29만명, 2019년 30만 6천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였으며, 탑승율 또한 90%를 상회하는 이용율이 높은 공항이었다.

그간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M&A) 실패와 직원 605명의 정리해고 등으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마저도 사측의 인수자 우선 모색 회생을 하자는 방안과 조중사노동조합의 임금채권을 바탕으로 한, 법정관리를 신청 하겠다는 방안 등으로 나뉘면서 그 앞길이 어둡기만 하다.

그 동안 군산-제주를 이어준 이스타 항공과 대한항공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었다. 항공사 착륙료지원금을 2017년부터 2억2천만원에서 2020년 2억5천만원 가량지원하고 있으며, 항공사 손실보전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노선에 돌연 비슷하게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여 진다. 하지만 사정이 좀 다르다, 이스타 항공의 본사는 군산이고 이스타 항공의 매출과 관련된 지방세가 군산시에서 납부되어지는 점은 결국 납부한 세금으로 일부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셈이지만,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일방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북도와 군산시가 5:5의 동율로 지원하던 지원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적정정도로 군산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방세 세수가 약한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군산시에 많은 지방세 수입을 차지했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그리고 OCI 등의 가동중단과 위축은 군산시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 향상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데, 이스타 항공의 빈자리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의 기초단체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이라 했던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는 조선시대 향약의 덕목 중 하나인 것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서로도와야 할 것이다.

은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 개독과 목사?

기독교(基督)는 그리스도(고대 그리스어: 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Christ), 이것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기리사독이 되었는데, 중국어로는 지리사뚜(ji li su du) 라고 발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리사독에서 첫 글자와 끝 자를 따서 기독교(基督)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가 옳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각설하고, 요즘 한국기독교는 가장 수치스러운 또 다른 이름 개독으로 불리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기독교는 영원히 개독이 될지도 모른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키워가는 무슨 협회가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삶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면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가서 그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이어야 한다.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수시로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지식을 유지 발전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

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주를 살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채우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마치 군대 훈련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장정을 불러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훈련소장이 훈련은 안 시키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장정들의 숫자와 규모만 자랑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물며 총기 살 돈을 가져와라, 군복 살 돈을 가져와라, 밥값을 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삶,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곳이며, 목사는 바로 이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들만을 위한 협회가 되었고, 목사는 제 본분을 망각하고 돈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로 변했다.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 숫자 늘리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것과 예수는 아무런 상관없다.

예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은 희생정신이고, 그 결론은 이웃 사랑이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기독교는 개독교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 뿐이다.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 군산시민예술촌 “2020개복거리예술제”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2020개복거리예술제”를 오는 10월 24일(토)오후2시~5시까지 군산 시민예술촌이 자리하고 있는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본 사업은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과 개복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시민 예술촌 대표적인 행사이다.

개(開)복(福)동이 지닌 의미를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여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복거리예술제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공연과 퍼포먼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 왔으며, 추억의 전통놀이, 보물찾기, 포토존 등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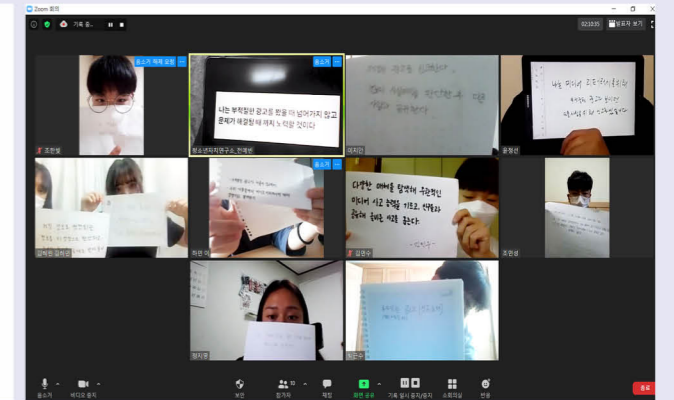
올해 준비된 공연으로는 택견, 국악버스킹, 시낭송, 마술쇼, 바투카나 브라질 전통춤, 퓨전탈춤, 사물놀이 등 코로나19에 맞는 방역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가 추후 발생돼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방역에 더욱 집중하여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 및 야외 뒤뜰에서 진행하도록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시간 생중계 혹은 유튜브에 녹화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촌장은 “이번 개복거리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활동무대가 줄고, 그로인해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민들 역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에 그들 모두에게 작게나마 심심한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개복거리예술제를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 달그락테마 봉사활동 프로젝트 - 미디어리터러시 편



사회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달그락 청소년자원봉사 자치기구는 매월 ‘청소년, 지역사회기여하기’ 달그락테마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9월에는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다. 8월 주제였던 사이버에티켓 주제를 심화시켜 최근 심화되는 가짜뉴스, 미디어의 무분별한 정보 범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치기구 청소년들은 비대면에서도 어색함을 해소하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자원봉사자치기구 부대표 김혜린 청소년의 제안으로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오픈카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며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 ‘자신의 의지로, 자원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돕는 것’ 등 자신이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한 달 내, 1년 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거짓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매체를 제재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원치 않는 광고를 신고하고 바람직한 광고를 유입자는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청소년은 원치 않는 광고나 부적절한 광고를 신고하고 숨기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제안했고, 20여분 동안 각자 자주 사용하는 SNS, 인터넷 포털 등에서 위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지금까지 이런 광고를 보긴 했지만, 그냥 넘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찾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번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원봉사자치기구 조민성 청소년은 ‘비록 비대면이지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느낌’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단순히 계획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주제를 이해하고, 이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치기구 청소년들은 꾸준히 돌아오는 프로젝트에서 매번 새로운 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 노력한다. ‘청소년, 지역사회기여하기’ 달그락테마 봉사활동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달그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 카페 이야기

카페 <음악이야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의욕이나 희망 대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카페 <음악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꾀다. 이 소설을 통해 함께 웃고, 같이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 배경, 인물은 모두 허구입니다.

## 잃어버린 꿈

### 설아



콜록콜록. 한 번 시작된 기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설아는 카페 주방에 쪼그리고 앉아 연신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콧물과 재채기,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근육통, 죽음을 떠올릴 만큼의 극심한 두통, 고열... 이제껏 이 정도로 심하게 감기를 앓아본 적은 없었다.

"유설아! 빨리 퇴근해! 오뉴월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리. 예잉!"  
카페 점장 언니가 등 뒤에서 놀리며 말했다.

"지금 시간이 몇 신데 퇴근을 해요? 콜록콜록."

"손님들이 너를 거부하신다. 잔말 말고 들어가시지?"

"제 인생에 조퇴는 없어요. 콜록콜록."

"지랄할 까불지 말고 얼른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집에 들어가. 오늘도 말 안 들으면 정말 막가자는 걸로 생각한다? 내 인생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냉큼 들어가라, 양?"

점장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소리쳤다. 설아도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카페 근무 4년 만에 처음으로 조퇴를 했다.

"천하의 유설아가 감기로 조퇴를 하는구나야"

점장이 놀리면서 말했다.

"점장님이 빠질까 봐 가는 거거든요? 콜록콜록. 그리고 제 이름은 유설아가 아니고 류설아라고요. 류설아!! 콜록콜록."



"지가 무시기 북조선 예미나이나? 거 발음하기도 따분하지 않습매?"

점장은 되지도 않는 북한 사투리로 장난치며 말했다.

"시끄럽소 점장 동무. 일이나 열심히 하시랴요. 메롱이우다. 콜록콜록."

설아도 사투리 흥내를 내어 점장을 놀려대며 허를 날름 내밀고는 카페 문을 열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진절머리 나는 여름의 무더위가 확 덮쳐왔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스팔트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찌 이 여름에 이토록 독한 감기 몸살이라니! 그것도 28년 생애중에 가장 지독한 감기 몸살이 말이다.

설아는 점장 언니의 말을 어겼다. 병원 응급실이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43번 버스를 탔다. 병원도, 설아의 집도 아닌 그 사람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다. 정훈 오빠. 카페를 쉬는 날엔 정훈 오빠가 사는 원룸에 가곤 한다. 임용 고시를 위해 공부하는 오빠를 대신해 집 청소와 빨래를 하기 위해서다. 반찬은 못하니가 가게에서 산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둔다.

지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설아의 꿈이 현모양처라는 것을. 그 꿈에 진심으로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리듯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감탄사를 연발했다. 조선시대도, 6, 70년대도 아닌 2016년에 스물여덟의 처자가 현모양처를 꿈꾸는 것이 더는 고상하거나 칭찬받을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거나 말거나 설아는 개념치 않았다. 한 남자의 착한 아내이자 어진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객기이거나 설핏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그 꿈을 스무 살 때부터 꽃피우기 시작했다. 정훈 오빠를 만나면서부터. 스무 살부터 지난 8년 동안 설아는 정훈 오빠에게 열중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철학에 열중했고, 그의 계획과 그의 야망에 열중했으며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열중했다. 교단에 서는 것이 꿈인 정훈 오빠를 위해 설아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물질적 지원을 위해 설아는 스무 살 시절부터 돈을 벌었다. 고깃집에서, 마트에서, 카페에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번 돈은 정훈 오빠가 먹고 자고 입는 것, 임용 고시를 위한 학원비와 용돈으로 쓰였다.

4년이다.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한 것이. 하루 12시간, 주 6일의 고된 노동에 매일 매일 몸은 지치고 피로에 절어 비척거리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훈 오빠와의 달콤한 미래를 위한 것인 까닭에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여고시절 국어 선생님을 흠모했던 설아는 국어 교사를 꿈꾸는 정훈 오빠가 그저 좋았다. 그 꿈을 이루는 것에 꼭 함께 하고 싶었다.



이현웅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 ■ 군산시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5개 분야 6개 사업, 5억 5,000만원 지원

군산시가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5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고유문화의 계승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오는 2021년 문화재 활용사업 중 5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통해 '문화재 아형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전통사사문화재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재 아형사업은 문화재와 그 주변의 문화시설을 아간에 개방하고, 문화재를 연계하는 아간프로그램을 실시해 문화재를 통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생생문화재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깨워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사업(8년 연속)과 신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은 향교 및 서원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 체험, 문화프로그램으로, 임피향교가 7년 연속 선정됐다. 전통사사문화재활용사업은 동국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국사, 우리나라의 사찰이 되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문화유산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삼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문화유산 방문학교)은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구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지역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격 출범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지역순환경제 창출  
군산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25일 팀장급 이상 실장, 부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환해 본 센터를 구성

으로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 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지역순환경제 창출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 7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직원채용 및 행정절차 이행 등 푸드플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상임이사, 경영기획실장, 공공급식사업부를 중심으로 6개팀으로 구성, 정규직 직원 30명,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재단은 군산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구축,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강화, 홍보 마케팅 및 소통역량 강화 세 가지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춘다. 채상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는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기획생산체계 확립, 관계시장 창출,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집중하여 군산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명산시장,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변신

어린이집·아동 600여 명 대상 실시  
피자 만들기·시장투어 프로그램 등 진행

군산명산시장(상인회장 복태만)이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 행사를 이어오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이한익)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8회에 걸쳐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주 월·수요일은 국수만들기, 화·목요일은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에도 더욱 신경을 쓰는 등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다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치자와 비트로 색을 낸 국수반죽을 직접 만져보고, 제면기를 이용해 면을 뽑는 국수만들기 체험과 피자 반죽을 직접 늘리는 등 시장 내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토핑을 이용한 피자 만들기를 통하여 오감만족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만들기 체험 후 편빌리지협동조합 '이야기 할머니'의 안내로 견어물 가게·닭집·아재가게·생선가게 등을 돌며 상인들로부터 산, 바다 등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와 상품유통에 대한 이야기로 생생한 경제교육을 듣고 있다. 명산시장 우물거리에서는 시장을

돌며 상품설명을 들은 것을 '퀴즈 맞추기'를 통해 교육과 재미를 더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참여자들은 약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명산시장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와 관련된 내용은 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063-442-6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 ■ 군산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 추진

미취학 아동 대상 1인당 20만원 지급  
초·중학교는 교육청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아동양육에 따른 돌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생)으로, 29일 1인당 20만원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했다. 9월 출생아(9월 30일까지)는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초등학교는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아동들은 주소지 소재 교육청에서 추후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한다. 김임준 시장은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고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취학아동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454-3233),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학교는 각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 ■ 군산시, 온택트 시간여행 축제관광주간 운영

군산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9일부터 18일까지 온택트 군산시간여행 축제 관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축제관광주간은 '리멤버 그리고 비긴 어게인(Remember &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지나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돌아보고, 오는 2021년 축제를 기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 2021 축제 슬로건 공모

전, 랜선 군산향 밤부두 쿠키와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영상모음이다.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는 1일부터 7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이벤트로 선착순 500명에게는 코로나 안전꾸러미를 제공한다. 기존에 시간여행축제를 찾지 않았더라도 올해 축제관광주간 전시장을 방문한 인증사진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본선은 축제관광주간 전자제로 라이브 중계가 이뤄지며, 추후 축제관광주간 기간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영상 등과 같이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계속 볼 수 있다.



## ■ 군산시, 시민 위해 다양한 보험가입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군산시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시민 안전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 질병 등에 대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도로 파손으로 인해 부상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해 부상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78명이 사고를 접수해 이중 104명에게 1억6,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총괄담당 회계과 454-2382, 도로담당 건설과 454-3562)에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시는 ▲만6세 취학전 아동의 부상 및 수술비 등을 보장해 주는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아동청소년과 454-4165) ▲자원봉사 중에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여성가족과 454-3112)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안전총괄과 454-3843)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건설과 454-3593)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농촌지원과 454-5902) 등에도 가입했다.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일괄 납부하고 있다.

2020 **10**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EXHIBIT 전시/축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바리톤 이현준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 본 II 'Soul'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은영, 엘레나 아발 리안 2인 음악회 보체양상을 제11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피아노듀오협회 제67회 정기연주회 테너 이우진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4	05	06	07	08	09
JBT롬본앙상블 창 단 20주년 기념 교류 음악회 전북 콘트라베이스 앙상블 제14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7회 희망 음악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교류공연 (강원도립무용단) 군산예술의전당	교향악단 제62회 특별 기획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목요국악예술무대 군산예술의전당	공연 호접지몽 II 군산예술의전당 전주대학교 제67회 춘계정기연주회 전북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졸업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캐리TV 러브콘서트 아리울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전북팍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0	11	12	13	14	15
캐리TV 러브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드림청소년오케스트 라 20회 정기연주회 아이리스 플루트 앙 상블 제13회 정기연 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 이현우 행복 콘서트 가족뮤지컬 긴머리 공주라퐁젤 군산 예술의전당 소프라노 서서희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성악가가 부르는 디즈니의 세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 문화여행 군산 예술의전당 연극 HAMLET 제13회 전북 실버 합창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극 HAMLET Dank sei Dir O Herr! 소프라노 이은희, 테너 이동규 2인 감사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6	17	18	19	20	21
연극 HAMLET 기점몽 전북 비올리스트 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군산대학교 정기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교수음악회 전주교대 관현악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전북교원관현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대 연성회 군산 예술의전당 드림 온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뮤지컬 신데렐라 군산 예술의전당 골드핑거스 제19회 정기연주회 전주 판소리를 세계 로 출항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용자 불우가족돕기 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뮤지컬 번개맨 -전주 제21회 장인숙 독창 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2	23	24	25	26	27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 나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 2020-10-12 ~ 2020-10-15
- 제9회 청목회 회원전 2020-10-16 ~ 2020-10-21
- 제31회 군산 빛누리 여성사우회 사진 전시회 2020-10-23 ~ 2020-10-29
- 제13회 한국서가협회 군산지부전 2020-10-24 ~ 2020-10-28
- 박진환 팔순기념 조각전 2020-10-29 ~ 2020-11-05
- 박정홍 7회 조각 개인전 2020-10-30 ~ 2020-11-05
- 제7회 색갈나무 정기전 2020-10-30 ~ 2020-11-05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 전북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전시회 10.08(목)~10.17(토)
- 제25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10.16(금)~10.22(목)
- 제52회 전라북도미술대전 10.29(목)~11.11(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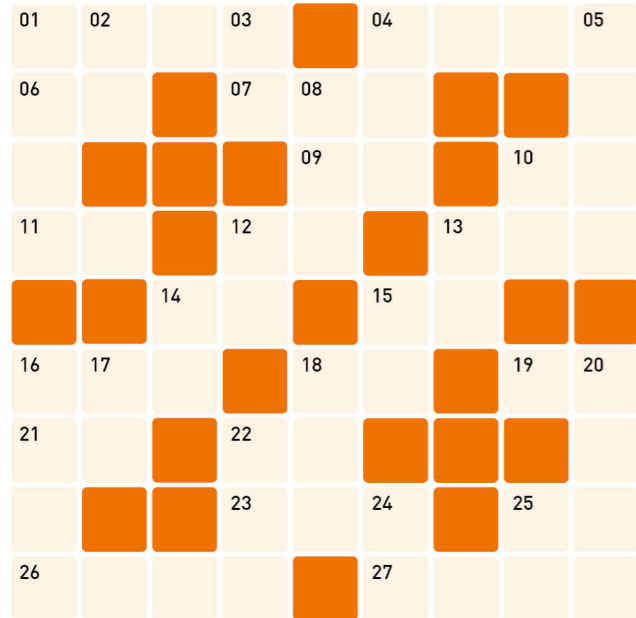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신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11



<제110호 퍼즐 정답>

아	성	소	수	자	여	물
비	서	비	밀			폭
규			도	일	사	탄
환	청	연	사	투	리	
사	간	혈	천	사		
초	대	소	리	육	조	
희	룡	득	지			변
나			상	추	방	석
리	더	고	군	분	투	개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전염병 바이러스 보유가 의심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며 외부 접촉을 제한하는 행위.
- 수술하기 전 몸의 일부분을 마취하는 일.
-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
- 이(齒)를 점점게 이르는 말.
-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줄리거나 배부르거나 할 때,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
- 자음과 모음을 맞추어 음절 단위의 글자를 만드는 일. (예: 'ㄱ'과 'ㅏ'를 맞추어 '가'를 만드는 것 따위.)
-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1인조, 2인조, 3인조의 세 종목이 있다.
- 남의 막일을 힘껏 도움. 뒷바라지에 쓰는 물건.
-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ㅇㅇ에 약하다고.
-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 주식회사가 이익금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
-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 같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작별을 알리는 말. 장례 때에 죽은 사람에게 이별을 알리는 말.
- 보호하고 도와줌. 하느님이 ㅇㅇ하사 우리나라 만세...
- 거의 죽을 뻔 하다가 도로 살아남.
-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

## 세로 열쇠

- 자기와 남이 다 같이 인정함.
- 일부러 꾸며내는 목소리.
- 권투에서, 팔을 완전히 뺐었을 때 손끝이 미치는 범위.
- 사는 곳도 일정치 않고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
-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의 허가를 증명하는 사증.
-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
-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
- 잘못. 흠. ㅇㅇ보수.
-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계절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ㅇㅇ정치인.
-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갖는, 일정한 크기로 조그맣게 자른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 신용ㅇㅇ.
- 씨름에서, 상대방의 살바를 잡고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자기의 몸을 돌리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분별이 없음.
-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현재 까지 영향을 주는 감정적 충격.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 보태어 도움.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 ALLFORYOU

## 올포유 군산나운점 확장 이전 OPEN

2020.9.25



### 구매고객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10  
만원

이상 구매 고객  
**스카프** 증정



15  
만원

이상 구매 고객  
**면기세트** 증정



20  
만원

이상 구매 고객  
**후라이팬** 증정



소진시 마감되며 사은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LLFORYOU

나운점  
063-463-9693  
군산시 대학로 317

수송점  
063-468-3900  
군산시 수송북로 7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가능